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1. 독립군의 편성과 국내진입작전
2.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3. 경신참변과 자유시사변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1. 독립군의 편성과 국내진입작전

1) 시대적 배경

한국독립운동의 일대 분수령이 된 1919년의 3·1운동은 독립군 편성과 독립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한민족의 저력은 3·1운동에서 엄청난 규모로 분출되었지만, 전 민족이 갈망하던 독립은 이룩되지 않고 일제의 탄압과 감시만 더욱 강화될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코자 서북간도와 연해주, 상해와 북경, 그리고 미주 등 해외 각지로 탈출하였다.

3·1운동 직후 국내외의 민족지사들은 강력한 무장투쟁만이 일제로부터 민족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민족해방운동의 방편으로서의 평화적인 만세시위운동이 갖는 한계를 절감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1910년 국치 전후부터 민족운동자들은 그동안 국외 독립운동의 주된 사조였던 ‘독립전쟁론’의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한편 1894년 청일전쟁 이후 개시된 의병항전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 고조되는 1907년 이후가 되면 북한지역을 비롯해 압록·두만강 대안의 간도와 연해주지역에까지 확대되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의병은 국망에 직면한 절박한 시대상황에서 일제 침략세력을 축출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집요하고도 처절한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08년 하반기 이후 수년 동안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이 고갈된 이들 의병은 새로운 항전 방향을 모색하고 근거지를 구축, 지속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간도와 연해주 등

지로 넘어간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제천의병장 柳麟錫을 비롯해 李鎭龍・趙孟善・朴長浩・白三圭・趙秉準・全德元 등의 양서지역 의병장, 洪範圖・車道善 등의 함경도 의병장 등이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 망명 직후 홍범도 의병의 경우, 일제측의 한 기록에서는 “500명이 전원 무장을 하고 매월 15~17일간씩 훈련하는 한편, 항전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며 … 국내 일반 군경의 배치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39명의 密査班을 파견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재기항전에 대한 노력과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¹⁾ 결국 이러한 의병의 복상 세력은 국망 이후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독립군의 모태가 되면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²⁾

또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북간도의 한인단체들도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였다. 국치 이후 북간도의 대표적인 한인자치 단체였던 墾民會가 大韓國民會로, 서간도의 扶民團이 韓族會로 각기 확대 개편되어 그 산하에 독립군단을 편성하고 군비확충과 군사훈련에 진력한 것이 그것이다.

2) 독립군의 편성

서북간도와 연해주의 한인사회에서는 3·1운동 발발 직후부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항일전을 표방한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고 있었다. 1919~1920년 사이에 북간도에서 조직된 독립군단만 보더라도 大韓軍政署・大韓國民軍・大韓獨立軍・軍務都督府・大韓義軍府 등 대규모 군단에서부터 大韓光復團・義民團・大韓新民團・大韓正義軍政司 등등 중소규모의 여러 독립군단이 있었다. 또한 서간도에서도 西路軍政署와 大韓獨立團 등을 비롯해 光復軍總營・光復團・義成團・天摩隊 등 수십 개의 대소 군단이 독립전쟁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러한 현상은 한민족의 독립을 향한 고조된 열기가 일시에 분

1) 윤병석,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탐방기》(지식산업사, 1994), 32~33쪽.

2)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한울, 1998), 360쪽.

출된 결과였다.

수많은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이 정비·편성된 것은 항일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갈래의 군단이 도처에서 편성된 결과, 활동면에서 볼 때 각기 고립 분산적으로 항일전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전력의 분산이라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 독립군단의 전력 통합은 항일전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에 따라 여러 항일단체와 독립군단은 각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항일전을 수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상호 통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표방하고 서북간도 각지에서 편성된 독립군단 가운데 중요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³⁾

(1) 북간도지역

가. 대한군정서

북간도지역에서 편성된 여러 독립군단 가운데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大韓軍政署(일명 북로군정서)이다. 대한군정서는 국치 직후에 조직된 대종교의 重光團이 발전한 것이다. 북간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徐一 등의 대종교 인사들은 국망 전후 북상도강을 단행하였던 항일의병을 규합하여 1911년 3월에 汪清縣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하였다.

중광단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전쟁을 표방하고 만주 일대의 대종교 신도와 북상한 의병 및 공교회원 등을 규합하여 正義團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독립군단으로 편성된 정의단은 1919년 8월 軍政會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고 왕청현 春明鄉 西大坡에 본영을 두었다. 이어 군정회는 같은 해 10월 軍政府로, 그리고 12월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명령에 복종키로 하고 임시정부 〈국무원령〉 205호에 의하여 大韓軍政署로 다시 명칭을 바꾸어 임시정부 산하의 중요 군단이 되었다. 대한군정서는 서간도에서 李相龍·池青天 등의 주

3) 독립군단의 편성내용에 대한 서술은 尹炳奭 외, 《中國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集文堂, 1997), 〈북간도 독립군단의 편성〉(93~107쪽)의 주지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도로 편성된 서로군정서와 구분하기 위하여 북로군정서로 불렀다.

대한군정서에서는 金佐鎭과 같은 유능한 지휘관을 군사령관으로 맞이하고 士官練成所까지 설치해 무관 양성에 전력하였다. 일제측에서는 대한군정서가 청산리대첩 직전인 1920년 8월 중순 현재 독립군 약 1,200명에 소총 1,200정, 탄약 24만 발, 권총 150정, 수류탄 780발, 기관총 7정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⁴⁾

대한군정서는 중광단 시절부터 근거지로 삼아온 왕청현 춘명향 榆樹川(德源里)에다 총본부격인 총재부를 두었으며, 춘명향 서대파(十里坪)에는 군사령부를 두었다. 청산리대첩 직전의 핵심 간부진으로는 서일이 총재, 玄天默이 부총재를 맡았으며, 그 휘하에 서무부장 任度準, 재무부장 桂和, 참모부장 李章寧 등이 있었다.

대한군정서의 사관연성소는 1920년 3월 왕청현 십리평에서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생도수는 6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 입교생이 계속 늘어나 같은 해 9월 289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다. 대한군정서의 사령관인 김좌진이 연성소장을 겸직하였고, 그 아래에 사령부 부관 朴寧熙가 학도단장을 맡았으며 교관 李章寧·李範奭·金奎植·金弘國·崔尙云 등이 생도훈련을 담당해 정예군을 양성하고 있었다.

나. 대한민국민군

大韓國民軍은 대한국민회 산하에 편성된 독립군단이다. 3·1운동 직후 결성된 대한국민회는 북간도 거의 전역에 걸쳐 지방조직이 정비되어 있던 대표적인 한인 민정기관이었다. 이와 같은 탄탄한 조직을 기반으로 대한국민회에서는 강력한 전력을 갖춘 대한민국민군을 편성하고 항일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치 이후 북간도의 대표적인 한인단체였던 墾民會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대한국민회는 본부를 연길현 春陽鄉 蛤蟆塘(하마탕)에 두고 그 밑에 동·서·남·북·중의 5개 지방회와 70여 개의 지회를 두었다. 회원의 대부분은

4) 《獨立軍團名簿》(국가보훈처, 1997), 20쪽.

기독교 신자였으나 후에는 불교·천도교·孔敎會 계통의 인물도 가담하였다. 회장은 한때 馬晉이 선임되기도 하였으나 간민회 이래로 북간도 항일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具春先이 맡았다.

安武가 인솔한 대한국민군은 일제 기록에 의하면 1920년 8월 현재 병력 약 450명에 소총 600정, 탄약 7천발, 권총 160정, 수류탄 120개 등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⁵⁾

대한국민군은 주로 홍범도가 거느리는 大韓獨立軍이나 崔振東(崔明錄)이 인솔하는 軍務都督府軍과의 공동작전을 통해 전과를 올렸으며, 청산리대첩이 임박한 1920년 가을에는 이들 두 군단과 차례로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전력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었다.⁶⁾

다. 대한군무도독부

다음으로 大韓軍務都督府(통칭 군무도독부)는 최진동이 통솔한 독립군단으로 왕청현 春華鄉 鳳梧洞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1920년 3~6월 무렵 두만강 대안에서 전개된 국내진입작전은 대개 이 군단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대한독립군 및 대한국민군과 연합해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1920년 8월 현재 일제 군경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군무도독부 병력은 약 600명으로, 소총 400정, 권총 50정, 수류탄 20개와 기관총 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⁷⁾ 최진동 외에 중요 간부진에는 고문 金星極, 참모 朴英과 崔精化, 총무 朴施源, 募捐隊長 崔太汝 등이 포진해 있었다.⁸⁾

라. 대한북로독군부

大韓北路督軍部는 1920년 5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대한국민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단일 연합부대를 결성한 군단으로, 1920년 6월의 봉오동승첩을 거둔 주역이었다.

이 군단을 이끈 홍범도는 1907~8년 경 북청·삼수·갑산·장진 일대에서

5) 《獨立軍團名簿》, 68쪽.

6) 愛國同志援護會 編, 《韓國獨立運動史》(1956), 305쪽.

7)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3(1967), 631쪽.

8) 《獨立軍團名簿》, 238쪽.

명성을 날리던 의병장으로, 국치 직전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국외 의병에 합류하였으며, 1910년대 중반에는 한때 북만 密山府로 들어가 재기 항일전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홍범도는 3·1운동을 겪은 후 독립군 편성에 착수하였다. 즉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발발한 뒤 연해주에서는 직접적인 항일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휘하 150여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북간도에 들어가 정예의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항일전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홍범도는 1919년 여름부터 국내진입작전을 벌이는 한편 독립군단간의 통합운동과 연합작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우선 왕청현의 羅子溝와 蛤蟆塘 등지에서 대한국민회 인물들과 상의한 끝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행정과 재정은 대한국민회가 담당하고 군무의 경우는 대한독립군을 홍범도가, 대한국민군을 안무가 각각 분담해 통솔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실전에 임할 경우에는 홍범도가 ‘北路征日第一軍司令部長’의 직함을 가지고 전군을 지휘토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성립된 북로정일제일군은 곧이어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도 군사통일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大韓北路督軍部’⁹⁾가 탄생하게 되었다. 통합 군단은 군무도독부의 본영이 있던 봉오동에 전력을 집결시키면서 부단한 국내진입작전을 수행하였다. 일제 정보기록에서는 대한북로독군부의 전력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한독립군 계통으로는 병력 460명에 소총 200정, 탄약 4만 발, 권총 50정의 전력을 구비하고 있고, 군무도독부와 대한국민군 계통으로는 280여 명의 병력에 소총 200정, 탄약 1만 2천 발, 수류탄 120개, 기관총 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대한북로독군부의 편제와

9) 大韓北路督軍部와 大韓北路督軍府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명칭으로 보인다. 일제가 탐지한 독립군의 한 문서인 〈國民 第73號 軍務機關組織ノ件〉(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3, 原書房), 323쪽에는 ‘大韓北路督軍府’라 하였고, 다른 문서인 ‘大正十年四月; 〈間島方面에서의 不逞鮮人團의 組織 및 役員 調査書〉’에서는 ‘大韓北路督軍部’의 조직계통 속에서 ‘大韓北路督軍府’를 기록해 놓았다. 한편 일제측의 봉오동전투 보고서인 〈安川追擊隊ノ鳳梧洞附近戰鬪詳報〉(독립기념관 소장문서)에는 ‘大韓軍務都督府’가 ‘大韓北路督軍府’로 개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독립군과 군무도독부, 그리고 대한국민군 등 3개 군단 통합체의 명칭은 大韓北路督軍部이며, 그 조직계통 속에서 대한국민군과 군무도독부군의 합체를 大韓北路督軍府로, 대한독립군을 北路征日第一軍司令部로 불렀던 것 같다.

임원을 보면 부장 최진동, 부관 안무를 필두로 북로정일제일군사령부 사령부장에 홍범도, 부관에 朱建, 참모에 李秉堦・吳周爨 등이 선임되어 있었다.¹⁰⁾

마. 대한의군부

大韓義軍府(통칭 의군부)는 국치 이후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의병을 중심으로 3·1운동 후 결성된 대규모의 독립군단이었다. 간도관리사 이래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주도하던 李範允을 비롯해 허근・趙尙甲・崔于翼 등의 명장들이 이 군단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범윤이 연해주를 떠나 북간도로 건너온 1920년 전후에 편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연길현 明月溝에 근거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부의 조직은 이범윤 총재 휘하에 사령관에 金營善, 감사부장에 崔于翼, 재무부장에 姜鳳舉 등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단순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독립전쟁이 고조되던 1920년 7월 이후에는 檢査部和 參謀官會議, 군사령부를 통솔하는 參謀部, 경리와 警衛를 맡은 參理部, 그리고 지방조직을 통솔하는 地方部 등으로 정비되었다. 한편 전투부대는 허근을 대장으로 하는 약 100명의 ‘大韓義軍前衛隊’와 최우익을 총무로 하는 ‘大韓義軍山砲隊’로 구성되었다. 특히 160여 명으로 구성된 산포대는 일반 독립군 편성과는 다른 정예 특공부대였다. 그러나 얼마 뒤 전위대와 산포대는 하나의 ‘大韓義軍’으로 통합된 듯하다. 대한의군은 이범윤 휘하에서 최우익이 대한의군부 總辦이란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솔하였으며, 다시 그 아래에 大韓義軍司令官 申日憲이 전면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¹⁾ 1920년 8월 하순경에는 의군부의 최고 전략가이며 핵심인물인 총무부장 최우익을 비롯하여 李乙・姜道天 등 13명의 의군부원이 依蘭溝 北洞에서 일본군의 포위공격을 받고 순국하는 참변을 당하기도 하였다.¹²⁾

10) 《獨立軍團名簿》, 258~262쪽.

11) 《獨立軍團名簿》, 194~232쪽.

12)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공보처, 1947), 77쪽.

《獨立新聞》, 1923년 1월 10일, 〈殉國諸氏의 略歷〉.

바. 훈춘한민회

璦春韓民會(훈춘대한국민회, 훈춘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훈춘지회)는 이동휘 계열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독립운동단체로 훈춘현 四道溝 小黃溝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총 회원수가 2만 1천 명에 달하였을 정도로 세력이 컸으며, 大韓新民團과 더불어 훈춘지방에서 가장 유력한 독립운동 중심체가 되었다. 이 단체는 1920년 8월 현재 250여 명의 병력에 소총 300정, 기관총 3정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¹³⁾

사. 대한광복단

大韓光復團은 왕청현 大坎子와 依蘭溝 등지에서 이범윤이 단장이며 金星極과 金聖倫이 孔敎會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독립군단이다. 이 군단은 대한국민회나 대한군정서와 달리 공화제를 반대하고 대한제국의 復辟을 주장하였다. 대한광복단은 세력범위가 왕청현의 서부와 연결된 중부에 지나지 않을 정도여서 다른 독립군단에 비해 그 세력이 크지 않았다. 일제측의 기록에 따르면, 1920년 8월 현재 병력 200여 명에 소총 400정, 탄약 1만1천 발, 권총 30정의 전력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⁴⁾

아. 대한신민단

大韓新民團(통칭 신민단)은 3·1운동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부근에서 金奎屍이 조직한 독립군단으로, 왕청현 春華鄉 石峴에 지단 본부를 두고 있었다. 뒤에는 연결현 崇禮鄉 廟溝 방면으로 근거지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1920년 8월 현재 병력 200명, 소총 160정, 탄환 9,600발, 권총 30정, 수류탄 48개 등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⁵⁾

자. 대한의민단

大韓義民團(일명 대한민국의민단, 통칭 의민단)은 1920년 4~5월 경 연결현 崇禮鄉 廟溝(明月溝)에서 천주교 신도와 항일의병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

13) 《獨立軍團名簿》, 311쪽.

14) 《獨立軍團名簿》, 270쪽.

15) 《獨立軍團名簿》, 280쪽.

군단이다. 方雨龍을 단장으로 한 의민단은 1920년 8월 현재 병력 300명에 소총 400정, 탄약 4만 발, 권총 50정, 수류탄 480개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⁶⁾

(2) 서간도지역

가. 서로군정서

서간도지역에서도 북간도와 마찬가지로 3·1운동 직후부터 여러 독립군단이 편성되어 독립전쟁을 표방하고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독립군단으로는 西路軍政署가 있다.

서로군정서는 국치 이후 서간도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결사였던 扶民團이 3·1운동 직후 확대 개편된 韓族會를 모체로 한 것이다. 국치 이후 柳河縣과 通化縣을 중심으로 한인들의 자치를 신장하는 한편 新興學校를 설립하는 등 무장항일전을 준비해온 부민단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시대상황에 순응키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한 결과 1919년 3월 13일 한족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한족회의 중앙총장은 李沍이 맡았으며, 기관지로 《韓族新報》를 발간하였다.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모든 독립운동을 지도 통제할 중앙정부의 건립에 최고목표를 두었던 한족회는 우선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수행할 주체로서의 군정부 건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19년 4월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한족회는 그 산하에서 군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서로군정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던 것이다.¹⁷⁾ 서로군정서의 최고 책임자인 독판에는 李相龍이 선임되었으며, 그 아래에 부독판 呂準, 정무청장 李沍, 참모부장 金東三, 사령관 池青天 등이 간부진을 구성하고 있었다.

서로군정서는 1919년 5월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바꾸고 독립군 간부 양성에 주력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통화현 哈泥河에 본교를, 그리고 통화현

16) 《獨立運動名簿》, 275쪽.

17) 《獨立新聞》, 1920년 4월 22일, 〈大韓軍政署略史〉.

快大帽子和 유하현 孤山子 등지에 분교를 두었다. 초대 교장은 李世榮이었으며 연성대장은 지청천이 맡았고, 교관으로는 吳光鮮·申八均·李範奭·尹擎天 등이 있었다. 교반 편성은 하사반과 장교 및 특별훈련반으로 나누어 하사관 3개월, 장교 6개월, 일반 사병 1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919년 11월까지 3천 5백여 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예부대를 편성한 서로군정서는 압록강 대안의 강계·삭주 등지로 국내진입작전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대일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¹⁸⁾

나. 대한독립단

大韓獨立團은 양서지방에서 활동하다 북상한 의병 계열인 朴長浩·趙孟善·白三奎·全德元 등이 1919년 4월 조직한 독립군단이다. 본부는 유하현 삼원포 西溝 大花斜에 두었으며, 국치 직후 의병 계열의 망명지사들이 조직하였던 保約社·鄉約契·農務契 등을 통합 확대한 것이다. 대한독립단의 대표인 도총재에는 박장호, 부총재에는 백삼규가 선임되었으며, 그 아래에 咨議部長 朴治翼, 총참모 趙秉準, 총단장 조맹선 등이 핵심간부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본부 산하에 대한독립단은 서간도와 국내 각지에도 수많은 지단과 지부를 두고 군인정보와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여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로 압록강 대안의 국내로 잠입, 일제 군경과 교전을 벌여 나갔다.¹⁹⁾

대한독립단은 1919년 5월까지 세력 확장을 위해 군자금 모집과 군인정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 시기 동안 6~7백명의 장정과 3만원의 군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다. 수집된 군자금은 무기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모여든 장정들은 북만주로 보내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 뒤에도 장정들이 계속 모여들어 1919년 8월까지 그 수가 1,5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²⁰⁾

그러나 대한독립단은 1919년 말 연호 사용문제를 계기로 이념과 노선에 따라 조직이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檀紀’ 또는 ‘隆熙’ 사용을 주장하는, 곧

18) 尹炳奭 외, 앞의 책, 242·276쪽.

19) 愛國同志援護會 編, 앞의 책, 251~254쪽.

20) 國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653~662쪽.

조선왕조의 회복을 기대하는 복벽주의 세력과 임시정부 연호인 ‘民國’ 사용을 주장하는 공화주의 세력간의 대립이 그것이다. 그 결과 복벽주의 계열은 기원독립단을, 공화주의 계열은 민국독립단을 각각 조직함으로써 단은 양분되었다. 복벽주의 계열은 도총재 박장호를 비롯해 백삼규·전덕원 등 유인석 계열의 노년층 인맥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공화주의 계열은 趙秉準·金承學 등 비교적 소장파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가운데 민국독립단 계열의 인사들이 대한청년단연합회·평북독판부 등의 독립군단들과 함께 광복군총영을 결성하였고, 복벽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계속 대한독립단을 유지하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²¹⁾

다. 대한독립군비단

大韓獨立軍備團은 함경도 출신의 항일지사들을 주축으로 1919년 5월 경 백두산 서남방의 長白縣에서 결성되었다. 그해 10월 경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된 李泰杰·梁玄卿·金鼎益 등이 단의 約章과 支團규칙을 제정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독립군단의 면목을 더욱 일신할 수 있었다. 중앙부서의 간부진으로는 이태걸이 단장을 맡았으며, 그 아래에 부단장 金東俊, 총무장 金燦, 재무장 李東白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군비단은 장백현의 본단 외에도 남북만주 여러 지역과 국내에도 지단을 설치하고, 임시정부의 지도하에 한때는 만주와 노령 지역의 무장투쟁세력을 총동원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하기도 하였다.²²⁾

이같이 본부 및 지단의 체계를 갖춘 대한독립군비단은 수시로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진입,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군비단은 소속 독립군 대부분이 함경도 출신이어서 국경지방의 지리에 밝았던 관계로 함경남도 및 평안북도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진입작전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다. 특히 1921년간에 그 활동이 두드러졌다.²³⁾

21) 金承學, 《韓國獨立史》(1965), 370~371쪽.

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1976), 282~283쪽.

23) 尹炳奭 외, 앞의 책, 284~285쪽.

라. 광복군총영

3·1운동 직후 조직된 서간도지역의 여러 독립군단은 보다 효과적인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평북독판부 대표인 조병준·金承萬과 대한청년단연합회 대표인 安秉瓚·金贊聖, 그리고 대한독립단의 대표 김승학 등이 1919년 12월 경 寬甸縣 香爐溝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러한 목적에서였다. 회의 결과 이들 대표들은 현재의 각 독립군단을 해체하고 통일기구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1920년 2월에 김승학·안병찬·이탁 등이 상해로 파견되어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에서는 남북만주에 임시정부 직속기관인 광복군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그 부속기구로 민정을 관장할 參理部와 군사활동을 관장할 司令部, 그리고 독립군영인 수개의 軍營을 설치토록 하였다.

임시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관전현에는 1920년 초에 광복군이 조직되었다. 광복군은 성립과 동시에 각 부서를 영도할 지휘관을 임명하였는데 참리부장에는 조병준, 사령부 사령장에는 조맹선이 임명되었고, 邊昌根·吳東振·洪植·崔時興·崔燦·金昌坤 등이 각 군영의 營長을 맡았다.

한편 光復軍總營은 광복군 본부가 조직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오직 군사적 목적만을 수행할 특수부대로서 조직되었다. 즉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광복군의 각 군영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부대 상호간의 연락이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복군의 제2영장인 오동진이 휘하 부대를 인솔하고 관전현에 주둔하면서 자신의 부대를 광복군총영으로 개칭하게 되었던 것이다. 광복군총영장에는 오동진이, 그리고 경리부장에는 참리부장인 조병준이 선임되어 이들을 주축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국내의 천마산대를 광복군 天摩別營, 碧潼과 波瀾江(渾江) 연안에서 활동하던 무장단체를 碧波別營이라 각각 부르고 일제 군경을 상대로 활발한 항전을 벌였다.²⁴⁾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기관으로서 항일전을 전개한 광복군총영은 1920년 한 해 동안에도 일본군경과의 교전이 78회, 일제 주재소 습격이 56개소, 면사무소

24) 愛國同志援護會 編, 앞의 책, 258~259쪽.

및 영림창 소각이 20개소, 일제 경찰 9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²⁵⁾

이상에 언급한 독립군 부대 외에도 안도현 奶頭山(內島山)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大韓正義軍政司, 북만주 中東線 일대의 野團과 血誠團, 훈춘 일대의 復皇團, 서간도의 光復團・太極團・白山武士團 등 수많은 독립군단이 1919~1920년간에 만주·연해주 일대에서 편성되어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표방하고 활동하였다.

3) 국내진입작전의 전개

(1) 독립군의 전력강화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와 연해주 각지에서 독립군이 본격적인 항일전에 돌입하게 되자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말 “독립전쟁의 최후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규율적으로 진행하고 최후 승리를 지시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의 ‘준비’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임시정부는 독립군단의 편성과 정비, 군인모집과 군사훈련, 군비확충 등을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²⁶⁾

수립 초기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에 대한 경도와 시정노선의 방향설정 경향성은 이 무렵 임정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안창호가 1920년 정초에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해서도 그 일단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우리 당면의 대문제는 우리 독립운동을 평화적으로 계속하려는 方計를 고쳐 전쟁하려 함이요 … 진실로 우리는 시기로 보든지 의리로 보든지 아니 싸우지 못할 때라고 단정하시오. … 군사적 훈련을 아니 받는 자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요 국민개병주의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요 독립전쟁에 반대하는 자는 독립에 반대하는 자요(《獨立新聞》 제35호, 1920년 1월 8일, 〈우리 국민이 斷定코 실행할 六大事〉).

25) 尹炳奭 외, 앞의 책, 287~290쪽.

26) 國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82쪽.

독립군은 일제와의 독립전쟁 결행에 즈음해 3·1운동으로 고양된 독립의지에 충만해 있었다. 홍범도 등의 명의로 발표된 〈諭告文〉 중에서 “당당한 독립군으로 몸을 砲煙彈雨 중에 던져 반만년 역사를 광영되게 하며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줌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본의다”라고 밝힌 대목은 당시 독립군의 이와 같은 기상과 포부를 잘 드러낸 것이다.²⁷⁾ 임시정부 군무부에서도 1920년 1월 “충용한 대한의 남녀여, 혈전의 時, 광복의 秋가 來하였도다. 너도 나아가고 나도 나아가길지라. 정의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銃과 血로써 조국을 살릴 때가 이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포고〉 제1호를 발하여 독립전쟁의 개시를 선언하며 독립군의 사기를 독려하였다.²⁸⁾ 또 아래에 소개하는 〈독립군가〉는 이처럼 늠름한 독립군의 기상과 충만한 사기를 응축한 결정체였다.

나아가세 독립군아 어서 나가세	기다리던 독립전쟁 돌아왔다네
이때를 기다리고 10년 동안에	갈았던 날랜 칼을 시험할 날이
나아가세 대한민국 독립군사야	자유 독립 광복할 날 오늘이로다
정의의 태극깃발 날리는 곳에	적의 軍勢 낙엽같이 쓰러지리라

보느냐 반만년 피로 지킨 땅	오랑캐 말발굽에 밟히는 모양
듣느냐 이천만 檀祖의 血孫	원수의 칼 아래서 우짖는 소리
양만춘 을지문덕 피를 받았고	이순신 임경업의 후손 아니냐
나라 위해 목숨을 터럭과 같이	싸우던 네 조상의 후손 아니냐

탄환이 빗발같이 퍼붓더라도	창과 칼이 네 앞을 가로막아도
대한의 용장한 독립군사야	나아가고 나아가고 다시 나가라
최후의 네 핏방울 떨어지는 날	최후의 네 살점이 떨어지는 날
네 그리던 조상나라 다시 살리라	네 그리던 자유꽃이 다시 피리라

(《獨立新聞》 제47호, 1920년 2월 17일).

독립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만한 투지 외에 현실적 조건으로

27) 《獨立新聞》, 1920년 1월 13일, 〈諭告文〉.

28) 《獨立新聞》, 1920년 2월 10일, 〈軍務部布告〉.

군비조달과 무기구입 및 군사훈련 등과 같은 전력증강이 절급한 과제였다. 그 가운데서도 총기와 탄약 등의 화력증강이 무엇보다 우선되었다. 만주 독립군이 사용하던 무기는 대부분 제1차 세계대전중 시베리아에 출병한 체코 군대로부터 구입해 온 것이었으며, 여기에 소요된 자금은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국내 동포가 헌납한 군자금이었다.

독립군의 무기는 실로 다양하였다. 일반 군총으로는 러시아제 5연발총과 단발총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밖에도 미국제나 독일제, 심지어는 일제 총까지 섞여 있었다. 권총류로는 루가식을 비롯해 7연발식·남부식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중무기로는 기관총과 속사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폭탄이라 부르던 수류탄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로군정서의 경우, 청산리대첩 직전에 약 400명의 무기 운반대원을 중·러 국경의 三岔口 방면으로 파견해 1인당 각각 총기 4정씩을 휴대하여 모두 1,600정의 총기를 반입함으로써 화력증강을 꾀하였다.²⁹⁾ 전체적으로 독립군이 확보한 무기의 종류와 양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20년 8월 경 작성한 일제의 한 정보기록에서는 군총 3,300정, 탄약 19만 5,300발, 권총 730정, 수류탄 1,550개, 기관총 9정 등의 화력을 독립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³⁰⁾

독립군은 화력증강과 함께 군사훈련에도 주력하였다. 독립군 훈련을 실시하던 대표적인 기관이 북간도의 사관연성소와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였다. 사관연성소 생도의 경우, 매일 5시간 이상 집중적인 집총훈련을 받았으며, 22.5 Kg(6관)의 모래가 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완전무장한 채 산야를 구보 혹은 행군하며 전술을 익히는 고된 군사교련을 받았다. 아울러 매일 2회 독립사상 함양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도 병행하였다.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에서도 보병·기병·포병·공병 등의 기본과목과 총검술·격검·전술·편제학 등의 교과목을 가르쳤으며, 넓은 연병장에서 각개 교련과 기초훈련을 실시하는 등 강인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³¹⁾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3~194쪽.

30) 尹炳奭, 《獨立軍史》(지식산업사, 1990), 136쪽.

3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23쪽.

(2) 국내진입작전

1919년 3·1운동 발발 이후부터 서북간도의 독립군은 압록강·두만강 국경 부근으로 접근하여 국치 이래 10년간의 염원이던 국내진입작전에 돌입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국내진입작전은 1919년 8월 무렵부터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독립군의 공격이 임박해지자 일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군대와 경찰을 증파 배치시켜 철저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일제는 부·군 단위로 1개 경찰서를 두는 것이 상례였는데, 함북·함남·평북의 국경 3도의 경우에는 예외였다. 즉 함북에는 11개 군에 경찰서 19개, 파출소 6개, 주재소 130개, 출장소 42개를, 함남에는 16개 군에 경찰서 20개, 파출소 6개, 주재소 180개, 출장소 12개를, 평북에는 19개 군에 경찰서 24개, 파출소 5개, 주재소 195개, 출장소 84개를 설치해 놓고 이른바 국경수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던 것이다.³²⁾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을 선도한 인물은 명장 홍범도였다. 그가 인솔하던 대한독립군은 일제의 삼엄한 ‘국경수비망’을 뚫고 1919년 8월 국내로 진입, 압록강변의 혜산을 점령하고 갑산 공략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어 1919년 9월에도 독립군 한 부대가 갑산군 同仁面의 습井 주재소 등 일제 식민지기관을 공격하였다.

홍범도는 1919년 9월에 李範允·黃炳吉 등의 독립군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하며 백두산 부근에 근거지를 두고 다방면에서 대규모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이를 상해 임시정부에 보고하였다. 당시 임시정부를 주도하던 안창호는 이에 대해 시기상조를 이유로 1919년 11월까지 계획을 연기하라는 회신을 보냈다.³³⁾ 그러나 홍범도는 임정의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고 다음달인 10월에는 압록강을 건너가 강계와 만포진을 점령하였으며 자

32) 김의환, <독립군의 편성과 국내작전>(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4, 1988), 60쪽.

33)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6, 275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252쪽.

성에서는 일본군과 격전 끝에 ‘70여 명을 살상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³⁴⁾ 이는 곧 3·1운동 이후 독립군이 수행한 국내진입작전에서 거둔 최초의 큰 승첩이었다.³⁵⁾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은 1920년에 들어와 더욱 활발해졌다. 홍범도를 비롯해 최진동·안무·김좌진 등이 지휘하는 독립군은 수시로 국내진입작전을 펼쳤다. 그 가운데서도 1920년 2월초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온 미국 워싱턴발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불세비키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2,000명의 독립군은吉林으로 내려와 국내진입작전을 펼쳐 일본군 ‘某軍營’을 야습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때 독립군은 일본군을 무려 300명이나 사살하고 400명을 괴주시켰으며 會寧을 점령한 듯하다고 기록하였다.³⁶⁾ 이 부대의 실체나 전투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 무렵 독립군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이 활발해진 뒤인 1920년 3월에 작성된 일제측의 정보자료에 의하면, 그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독립군이 수행한 국내진입작전은 총 24회에 달하고 있다.³⁷⁾ 또 임시정부 군무부는 3월부터 6월초까지 독립군이 전후 32차례의 유격전을 전개했고, 일제 관공서를 파괴한 것이 34개소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³⁸⁾

독립군이 결행한 수많은 작전 가운데서도 특히 1920년 3월에 벌어진 온성 전투는 특기할 만하다. 3월 15일 독립군 200여 명이 두만강을 건너 온성군 柔浦面 豊利洞 주재소를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된 온성전투는 거의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되었다. 특히 18일에 벌어진 온성군의 美山 현병감시소 기습전은 독립군의 조직적 작전능력을 과시한 전투였다. 이날 새벽 두만강을 건너 온성군 美浦面の 長德洞과 月坡洞·豊橋洞 등지를 분산 공격한 독립군 소부대들은 50명씩 합세하여 미산 현병감시소 전방 고지 성벽을 점거한 뒤 일제 헌병 및 경찰과 50분 동안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섬멸

34) 《朝鮮民族運動年鑑》(在上海日本領事館, 1932), 1919년 10월 24일, 〈江邊八郡臨時交通局報告〉.

35) 尹炳奭 외, 앞의 책, 110~111쪽.

36) 《獨立新聞》, 1920년 2월 17일, 〈二千의 獨立軍이〉.

37)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647~648쪽.

38)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시켰다. 이들 독립군은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본대와 온성경찰서 경찰대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강을 건너 돌아왔다.³⁹⁾ 미산 헌병감시소를 공격하던 18일에 또 다른 독립군 200명은 온성읍을 공략하기 위해 새벽 5시 경 온성 대안의 凉水泉子에서 두만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일제 군경에게 탐지되어 작전을 중단하였다. 또 같은 날 오전에는 독립군 30명이 일제 경찰대와 교전을 벌이기도 하는 등 온성 일대에서 독립군의 활약이 크게 두드러졌다.

일제는 온성전투에서 보여준 독립군의 탁월한 전력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군경의 상부 보고서에서 “일시 경찰 헌병의 전멸을 의심케 하였다”라든가, “(독립전쟁의) 위험성의 일단을 폭로한 것” 등으로 기술한 대목은 그와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⁴⁰⁾

〈朴敏詠〉

2.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1) 봉오동승첩

(1) 삼둔자전투

북간도의 三屯子는 도문시 남쪽 10여 리 지점에 위치한 두만강변의 작은 국경마을로, 그 대안에는 동북방으로 중성군의 江陽洞이 자리잡고 있다. 1920년 6월 7일의 봉오동전투는 그 전단이 和龍縣 月新江 삼둔자에서 전날 벌어진 전투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삼둔자전투는 독립군이 그 동안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한 소규모의 국내진입작전이 단초가 되어 벌어졌다. 즉 6월 4일 새벽 30명 가량의 한 독립군 소부대는 통상적인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삼둔자

39)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619~62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270~271쪽.

40) 尹炳奭, 《獨立軍史》(지식산업사, 1990), 131~13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0, 270쪽.

에서 두만강을 건너 동북방의 강양동으로 진격, 일제 헌병순찰소대를 격파한 후 날이 저물자 두만강을 다시 건너 귀환함으로써 작전을 종료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일제 군정은 강양동 패전을 보복하기 위해 독립군 추격에 나섰다. 新美 중위가 인솔하는 남양수비대 1개 중대와 헌병순사 10여 명은 두만강을 건너 삼둔자에 이르러 분풀이로 무고한 한인 양민만 살륙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독립군은 삼둔자 서남방 요지에서 이들을 공격, 섬멸시켜 버렸다. 이것이 삼둔자전투로,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영토로 불법 침입한 일본군을 격퇴한 것이다.¹⁾

(2) 봉오동승첩

두만강 변경지대에서 전개한 독립군의 연이은 국내진입작전에 충격을 받은 일제는 북간도의 독립군 근거지를 수색, 탄압하기 위해 대병력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越江追擊大隊의 편성이 그것이다. 즉 함북 경성군 羅南에 사령부를 두고 두만강을 ‘수비’하던 일본군 제19사단은 三屯子에서의 참패를 설욕하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월강추격대대’를 편성, 불법으로 중국령 북간도를 침범하고자 하였다. 安川 소좌가 인솔하던 월강추격대대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²⁾

보병 제73연대 제10중대(神谷 대위 휘하 70명의 혼성중대)

기관총 1소대(紫山 준위 이하 27명)

보병 제75연대 제2중대(森 대위 이하 123명)

헌병대(小原 대위 이하 11명)

경찰대(葛城 경시 이하 11명)

여기에는 또한 삼둔자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新美 중대도 합류함으로써 대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6월 7일 새벽 온성군 下灘洞에서 도강을 완료한 일본군은 독립군의 주요 근거지인 鳳梧洞을 향하면서 작전을 개시하였다.

1)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 〈北嶽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鬥情報〉.

2) 〈安川追擊隊ノ鳳梧洞附近戰鬥詳報〉(독립기념관 소장), 三. 彼我兵力.

봉오동은 지금의 도문시에서 서북쪽으로 15리 떨어져 있으며 동북방으로 뻗은 25리에 달하는 긴 골짜기이다. 봉오동 계곡으로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으며, 골짜기 어구로부터 8리 떨어진 곳에 초모자 형의 높은 산이 있어 중국인은 이곳을 草帽頂子라 불렀다. 1920년 당시 봉오동에는 하촌·중촌·상촌 등 3개 한인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촌에는 최진동 일가를 중심으로 15호, 중촌은 80여 호, 북골과 남골로 된 상촌은 60여 호의 인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봉오동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독립군의 근거지로서 적합한 곳이었다. 봉오동의 남쪽으로는 고려촌·安山村·恢幕洞(도문)·삼둔자 등의 마을들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서북쪽으로 40여 리 북상하면 대한군정서 소재지인 西大坡가 나오고, 서남쪽으로 16리 지점에 대한신민단의 근거지인 石峴이 있고, 북쪽으로 40여리 지점에 대한광복단의 근거지인 大坎子가 있었다. 봉오동은 동·서·북 삼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천연요새와도 같았다.³⁾

홍범도를 총지휘관으로 하는 대한독립군과 신민단, 그리고 군무도독부 연합부대는 일본군의 침공에 대비해 주민들을 미리 산중으로 대피시켜 놓고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곧 홍범도는 험준한 사방 고지에 독립군 각 중대를 매복시켜 놓은 다음 일본군을 포위망 속으로 유인해 섬멸시킨다는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미리 세워놓은 작전계획에 따라 李化日이 인솔하는 독립군 소부대는 이날 새벽 미리 봉오동 밖의 고려령 북편 고지로 출동하여 유인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심야에 이화일 부대의 기습을 받은 일본군은 전열이 흐트러지는 등 제대로 응전치 못하고 고전하였다. 날이 밝아서야 전열을 재정비한 일본군은 부상병을 柔遠鎮으로 후송시키는 한편 부근 촌락을 수색하면서 오전에 봉오동 입구로 들어왔다.

봉오동 하촌으로 들어온 일본군은 최진동의 집을 비롯한 마을 전체를 유린하여 미처 피난하지 못한 노약자를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다

3) 金春善, <1920年代 韓民族反日武裝鬭爭研究에 관한 再照明>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朴永錫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2), 566~567쪽.

시 중촌을 지나 오후 1시 경 상촌을 향해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 전위 부대가 사망 고지로 둘러싸여 있는 상촌 남쪽 300m 지점의 琵琶洞 방면으로 가는 갈림길까지 진입함으로써 독립군의 포위망 속으로 들어왔으나 매복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곧이어 주력부대도 기관총대를 앞세우고 역시 독립군의 포위망 속으로 깊숙히 들어오게 되었다.

일본군 본대가 포위망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사령관 홍범도는 총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발사하였다. 삼면 고지에 매복하고 있던 독립군은 동시에 집중사격을 개시하였다. 불의의 기습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포위망 탈출을 시도하는 한편 응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리한 지형을 차지한 독립군의 맹렬한 공격에 예봉이 꺾인 일본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만 속출할 뿐이었다. 독립군의 완전한 포위망 속에서 3시간을 버틴 일본군은 드디어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독립군의 제2중대장 姜尙模는 부하들을 이끌고 패퇴하는 일본군을 추격해 다시 큰 타격을 가하였다.⁴⁾ 이것이 유명한 봉오동승첩의 전말이다.

봉오동에서 독립군이 일방적 압승을 거둔 사실은 한·중·일의 여러 관련 자료나 정황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과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큰 차이를 보여 그 실상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상해 임시정부의 군무부는 독립군측의 전과를 일본군 사살 157명, 중상 200여 명, 경상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독립군측의 피해는 전사 4명, 중상 2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전과는 압승 사실을 내외에 과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⁵⁾ 그렇지만 승첩 직후에 보도된 《독립신문》이나 중국 《上海時報》의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일본군 150여 명을 사살한 공전의 대승을 거둔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⁶⁾ 이에 반해 일제의 전투보고서에서는 참패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 30여 명을 ‘사살’하고 일본군측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각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실상을 철저히 왜

4)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 〈北嶺島에 在한 我獨立軍의 戰鬪情報〉.

5) 위와 같음.

6) 《獨立新聞》, 1920년 6월 22일, 〈獨立軍勝捷〉.

趙中孚 외 2인 編,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 5》(國史館, 1967), 433~434쪽.

꼭시켜 기술하고 있다.⁷⁾

봉오동승첩은 독립군과 일제 양측 모두에게 큰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독립군측은 임시정부 군무부가 이 승첩을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 선언하였을 만큼 이를 계기로 사기가 크게 진작될 수 있었다. 이로써 독립전쟁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확신한 독립군은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독립군단간의 군사통일 노력을 더욱 경주하는 한편, 병력보충과 군비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기양양과 전력증강은 장차 벌어질 일제 침략군과의 대규모 접전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었다.

한편 일제는 봉오동참패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일제는 그동안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에 시달리면서도 정규군대를 투입하면 독립군을 쉽게 ‘진압’할 수 있는 민병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봉오동참패를 계기로 일제는 정예화된 독립군의 강력한 전력을 실감하고, 장차 독립군이 국내진입작전을 대규모로 결행하게 되면 식민지 통치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⁸⁾ 결국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정규군대를 투입하고도 ‘예상 밖으로’ 당한 봉오동의 충격적 참패는 독립군의 전력을 재평가하고 독립군 ‘초토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케 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봉오동승첩에 이어 벌어진 청산리대첩은 봉오동전투를 계기로 독립군과 일제 양측이 받은 영향과 충격의 소산이기도 하다.

2) 청산리대첩

(1) 일본군의 간도 침공

3·1운동 이후 두만강과 압록강 접경지대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대책 마련에 혈안이 되었다. 1920년 5월부터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인 수차 심양을 왕래하며 만주 실력자인 巡閱使 張作霖을 만나 ‘중일합동

7) 〈安川追擊隊ノ鳳梧洞附近戰鬪詳報〉, 八. 彼我의 損害.

8) 신용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독립전쟁〉(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4, 1988), 101쪽.

수색'이란 명목하에 일제 군경을 동원해 독립군 탄압을 시도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⁹⁾ 이에 따라 서간도를 중심으로 하는 봉천성 내에서 일제의 奉天督軍 고문 우에다(上田)와 사카모토(坂本)의 두 경찰고문을 隊長으로 하는 上田隊와 坂本隊로 불린 '중일합동수색대'가 편성되어 전후 4개월에 걸쳐 독립군 및 항일단체에 대한 대탄압을 가하였다. 이는 결국 각지의 친일단체인 保民會를 앞세운 일제 군경의 항일민족주의자 학살작전이 되고 말았다.¹⁰⁾

그러나 중국 관리 가운데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동정 내지 지지하는 인물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북간도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길림성장 徐鼎霖을 비롯해 연길도윤 張世銓, 보병 제1단장 孟富德 등은 중일합동수색을 반대하고 일제측의 동정을 사전에 독립군측에 통지해 주었다. 그러므로 북간도에서는 중일합동수색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한중간의 우호관계 속에서 중일합동수색에 의한 독립군 탄압작전이 실패로 귀착되자, 일제는 직접 일본군을 간도로 침공시켜 독립군과 항일단체를 근원적으로 '초멸'하려는 대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봉오동참패를 계기로 이러한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1920년 8월까지 완료한 '間島地方不逞鮮人剿討計劃'이 그것이다. 침공 계획과 준비를 완료해 놓은 뒤 일제는 간도침략에 따른 국제적 비난과 불법성을 은폐할 적당한 구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1920년 10월의 琿春事件은 이와 같은 배경과 목적하에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었다.

일본군은 중국의 마적 長江好를 금전으로 매수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한 뒤, 이들로 하여금 일제의 영사관 분관이 있던 훈춘을 습격케 하였다.¹¹⁾ 이에 따라 400여 명의 마적단은 1920년 10월 2일 새벽에 야포 3문을 성 밖에다 걸어놓고 훈춘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훈춘의 일본 영사관 분관에는 영사관 경찰과 총독부 파견 경찰대 및 총독부 함북경찰대 등에 소속된 50여 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었다. 중국측의 요청에 의해 이들 병력이 한쪽 성문을 수비하였으나 마적들은 일제측과의 사전 약속대로 무난히 성문을 통과해 약

9)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67~68쪽.

10)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3, 663~666쪽.

11)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141~142쪽.

탈과 살육을 자행하였다. 결국 마적단의 난동으로 중국군 70여 명과 한인 7명이 살해당하는 참화를 입었고, 영사관원들이 탈출한 상태에서 비어 있던 일본 영사관 분관도 분탕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 함북파견 경찰 일가와 일인 부녀자 9명도 아울러 살해되었다고 한다.¹²⁾ 이것이 훈춘사건의 전말이다.

훈춘사건을 구실로 일제는 출동 대기상태에 있던 대규모의 병력을 사건 당일부터 즉시 간도에 투입하였다.¹³⁾ 중국 당국과의 사전 교섭이나 통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만주를 침범한 것이다. 10월 2일부터 수일간 북간도 일대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일본군의 주력은 한국 주둔군인 소위 주차조선군 소속의 일본군 제19사단이였다. 주력부대 외에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주둔군(浦潮軍)과 요동지역에 배치되었던 關東軍의 일부도 투입되었다. 구체적으로 만주 침공에 동원된 일본군의 부대별 병력 규모를 보면 주력인 ‘조선군’ 제19사단 9천명을 비롯해 20사단 700명, 블라디보스톡 주둔군 제14사단 4천명, 제11·13사단 각각 1천명, 북만주파견대 1천명, 관동군 1,200명 등으로, 총병력 2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¹⁴⁾ 이와 같은 대규모 병력이 기관총과 대포 등 중화기와 신형 장비를 갖추고 서북간도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세로 한인사회에 대해 대대적인 압박을 가해 온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독립군의 주요 근거지였던 북간도 일대는 제19사단 주력부대를 비롯한 일본군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2) 독립군의 근거지 이동

만주에 불법 투입된 일본군의 ‘작전’ 목적은 독립군의 완전 제거, 곧 “불령선인단에 대해 섬멸적 타격”을 입하는 데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군의 간도 침공에 앞서 일제측의 강요로 독립군에 대한 탄압을 외형적으로나마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던 처지에 놓인 중국 관헌은 현상 타개를 위해 대한국민회를 비롯한 여러 독립군단에 대해 근거지 이동을 요구하게 되었

12) 姜德相, 《現代史資料》 28, 146~148쪽.

13) 《問島出兵史》 上(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2, 韓國史料研究所, 1970), 17~20쪽.

14) 金靜美, 〈朝鮮獨立運動史上に於ける1920年10月—靑山里戰鬪の歴史的意味を求め—〉(《朝鮮民族運動史研究》 3, 靑丘文庫, 1986), 136쪽.

다.¹⁵⁾ 연길·왕청·화룡·훈춘 등 북간도의 4개 현에서 활동중이던 여러 독립군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근거지를 구축하기 위해 1920년 8월 하순부터 장정길에 올랐다.

북간도 독립군단 가운데 가장 먼저 장정에 오른 부대는 홍범도가 인솔하는 대한독립군이었다. 대한독립군은 봉오동승첩 이후 연길현 明月溝로 근거지를 옮긴 뒤 8월 하순 사관학교까지 건립한 본영을 떠나 백두산 서남방을 향해 장정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한달만인 9월 20일 경 대한독립군은 안도현과 접경지인 화룡현 二道溝 漁郎村 부근에 도착하였다.

대한독립군에 이어 안무의 대한민국군도 8월 31일 근거지인 왕청현 依蘭溝를 떠나 안도현 방면을 향해 장정에 오른 뒤 9월말 경 역시 화룡현 이도구 지방에 도착하였다.¹⁶⁾

한편 봉오동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군무도독부를 이끌던 최진동은 군사통일과 새로운 기지절정 등의 문제에서 홍범도·안무 등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결국 군무도독부는 백두산을 향하지 않고 동북방으로 근거지 이동을 단행해 9월말 경 왕청현 羅子溝에 도착하였다. 또한 의군부·신민단·광복단·의민단 등의 여러 독립군단도 9월 경 대한독립군이 향한 안도현 방면의 서남방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동북방의 나자구로 이동하였다.

북간도의 여러 독립군단 가운데 가장 늦게 장정길에 오른 부대는 왕청현 西大坡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대한군정서였다. 대한군정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건립한 사관 양성학교인 사관연성소에서 1920년 9월 9일 성대한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298명의 사관생도들이 6개월간의 훈련과정을 이날 이수하였던 것이다.¹⁷⁾ 또 이에 앞서 전력증강을 위해 1920년 6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파견하였던 200명 가량의 구입무기 운반대가 8월말 경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장정이 늦어진 대한군정서는 사관연성소 졸업생도를 중심으로 하는 旅行隊(敎成隊)와

15) 慎鏞廈,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乙酉文化社, 1985), 401~405쪽.

16)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351쪽.

17) 《獨立新聞》, 1921년 2월 25일, 〈大韓軍政署報告〉.

사령부 경비대, 그리고 본대 등으로 부대를 편성하고 9월 17~18일 장정에 올랐다. 총기와 탄약 등의 무기를 우마차에 적재하고 서대파의 본영을 떠나 화룡현 삼도구의 청산리를 향해 450리의 험로를 진군한 끝에 거의 한달 만인 10월 12~13일 경 목적지인 삼도구에 당도할 수 있었다. 서대파에서 청산리까지의 행군로에 대해 대한국민회 간부였던 洪相杓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대파에서 야음을 이용하여 대황구를 지나서 왕청현 街北으로 수천리 떨어진 험산준령을 거쳐 연길현 의란구 깊은 산 비적들이 통행하는 산로밖에 없었다. 이 산로는 안도현·연길현·왕청현을 연결하여 나재구(나자구)를 거쳐 노령으로 통행하는 지대였다. 그래서 이 산로는 마적이 이용하였고 만주국 당시 김일성군 약 300명과 최현군 약 150명이 이 길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우리 동포의 거구가 회소하므로 무장독립군의 장거리 행군에 고생이 막심하였던 것이다. 서대파에서 노두구령까지 산로이므로 약 320리 가량 될 것이다. 영에서 10리 되는 서구과 앞으로 내려가서 30리 가면 군정서 구역인 장인강 부락에 도착하여 30리 더 가면 이도구에 도착한다. 이도구에서 어랑촌이 10리요, 백운평까지 75리가 된다. 그러므로 서대파에서 백운평까지는 455리 가량 되는 것이다(洪相杓, 《간도독립운동비화》, 선경도서출판사, 1990, 85~86쪽).

이상에서 보았듯이, 청산리대첩의 주역인 김좌진 사령관이 인솔한 대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이 인솔한 대한독립군·대한국민군 등의 연합부대는 1920년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새로운 항일근거지를 건설하고자 각기 본영을 떠나 4~5백리를 장정한 후 화룡현 이도구와 삼도구 서북방의 밀림지대로 진군하였던 것이다.

북간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독립군단이 이와 같이 서남방 백두산록의 험준한 밀림지대인 화룡현 이도구·삼도구 방면으로 장정한 것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이도구·삼도구 일대가 국경과 근접해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 침략세력 구축이 궁극적 활동목표였던 독립군으로서는 국내진입작전을 펼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춘 국경 근접지대를 근거지로 삼는 것이 활동상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명장 홍범도가 백두산 방면으로 장정을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일본군대의 출동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일본군대와 교전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당지방에서 전사한다면 개죽음과 같아서 일시 백두산지방에 回避, 結氷 때를 기다려 한 말자국이라도 조선땅에 蔦進하여 의의있는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350~351쪽).

라고 근거지 이동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 밝힌 대목도 독립군의 그러한 경향성을 생생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백두산록 일대가 일본군과의 대전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세가 험준하고 산림이 울창한 이곳은 일본군의 정면 공격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지세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일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구비한 곳이었다. 독립군이 청산리 일대에서 거두게 되는 대승첩이 바로 이 점을 입증시켜 주는 산 증좌가 된다.

끝으로, 백두산록 일대는 당시 奉天省과 吉林省의 접경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중국군의 탄압을 피할 수 있는 適地로 판단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독립군이 이곳에다 근거지를 구축하게 되면, 일제측의 강요를 받은 길림성 군대가 공격해 올 경우에 독립군이 봉천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봉천성 군대가 공격해 올 경우에도 길림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⁸⁾

이도구와 삼도구 밀림지대 중에서도 대한군정서 독립군이 첫 회전에서 대승을 거둔 청산리는 함북 무산 북쪽에 자리잡은 忠信場에서 시작되는 장장 60리의 깊은 협곡이다. 그 골짜기 안에는 大進昌·松里坪·平壤村·싸리밭 등의 여러 촌락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또한 청산리 북쪽에 위치한 이도구도 漁郎村을 비롯해 甲山村·泉水坪·蜂蜜溝 등의 여러 촌락이 산재한 심산장곡이다.¹⁹⁾

18) 愼鏞廈, 앞의 책, 410쪽.

尹炳奭, 앞의 책, 170~171쪽.

19) 《獨立新聞》, 1921년 3월 12일, 〈北路我軍實戰記 二〉.

(3) 독립군의 전투준비

청산리대첩 당시 독립군의 전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독립군의 병력 규모·무기보유 상황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는 자료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청산리대첩 당시 전투에 직접 참가한 독립군의 대체적인 전력을 살펴보자.

대한군정서의 경우 약 600명의 정예병력과 100명 가량의 보충대 병력이 교전 개시 직전인 10월 12~13일 청산리 부근에 도착하여 주둔하고 있었다.²⁰⁾ 다량의 무기를 보유한 대한군정서 병력은 여행대장 羅仲昭와 중대장 李範奭이 인솔한 사관연성소 졸업생 300여 명을 위주로 한 旅行隊, 그리고 김좌진이 직접 인솔하는 본대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대화전 직전에 편제를 개편, 전력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즉 김좌진을 사령관으로 한 사령부와 그 밑에 참모부 및 연성대를 두고, 사령부 아래에는 다시 洪忠憲를 대대장서리로 하는 1개 대대로 개편하고, 그 대대는 4개 중대와 1개 기관총 소대로 편성하였던 것이다.²¹⁾ 보통 1개 소대가 50명이며 1개 중대는 2개 소대로 이루어졌으므로 대대 병력은 400명 가량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홍범도가 직접 지휘하는 대한독립군은 그 동안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및 안무의 대한국민군과 연합한 결과로 大韓北路督軍部를 편성하여 1920년 6월 봉오동승첩을 거두었다. 이어 같은 해 7월 북간도 여러 독립군단의 군사통일 진전으로 東道軍政署가 성립되자, 대한북로독군부는 그 별동부대인 東道督軍府로 편성되었다. 그리하여 홍범도는 이 동도독군부의 사령관으로서 연길현 依蘭溝 九丹溝 오지에 본영을 두고 4개 대대 1,600명의 큰 군단을 편성하여 요충지에 주둔시키면서 군사훈련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이 무렵에는 대한국민회와 상해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明月溝에 무관학교까지 설립하여 본격적인 간부훈련도 개시하였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연합한 독립군부대 가운데 안무의 대한국민군은 북간도 한인사회의 자치와 독립군 양성에 가장 큰 기반을 가진 대한국민회

20)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361·396쪽.

21) 《獨立新聞》, 1921년 2월 25일, 〈大韓軍政署報告〉.

의 직속 군대였다. 이 군단은 그 동안 국내진입작전과 봉오동전투에도 참전하였던 부대로, 군사금이 비교적 풍부하고 정기적으로 훈련도 받아온 정예군이었다. 봉오동승첩 이후 8월 경의 대한국민군 병력은 450명이었다. 대한국민군은 위에서 보았듯이 8월 말 대한국민회의 지시에 따라 대한독립군의 뒤를 이어 의란구의 본영을 떠나 9월 하순 이도구 부근에 도착하였다.

대한의군부는 봉오동전투 이래 許根을 단장, 姜昌大를 부단장으로 하는 부대로 개편, 대한독립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수행해 왔다.²²⁾ 그리하여 이도구 방면으로 진군한 후에는 홍범도 휘하에서 청산리대첩에 참전하였다. 이 무렵의 병력은 150명 정도로 추정된다.

훈춘한민회군은 이도구로 이동한 뒤 홍범도 휘하에서 200여 명 정도가 대첩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광복단은 1920년 8월 현재 단원이 2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대첩 직전에는 450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로 대첩에 참전한 병력은 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의병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대한의민단은 200~300명의 총병력 가운데 100여 명 정도가 직접 참전하였다. 이도구 방면에 진군한 대한의민단은 일명 冒險隊로 알려졌고 홍범도 부대와 합류한 뒤 대첩에 참가하였다. 대한신민단은 장정에 오를 때 그 일부가 최진동이 인솔한 군무도독부군을 따라 羅子溝 방면으로 북상하였지만, 나머지 200여 명은 홍범도 부대를 따라 이도구 방면으로 이동한 뒤 연합부대의 일원이 되어 대첩에 직접 참전하였다.

이상과 같은 독립군의 병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청산리대첩 당시 독립군의 병력 규모를 대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대한군정서 600명, 대한독립군 300명, 대한국민군 250명, 대한의군부 150명, 훈춘한민회 200명, 대한광복단 200명, 대한의민단 100명, 신민단 200명 등 모두 2,000명 정도의 독립군이 청산리대첩에 참전한 것으로 파악된다.²³⁾

한편 김좌진과 홍범도, 안무 등 독립군의 주요 간부들은 청산리일대로 들어온 일본군과의 대규모 회전을 앞두고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숙의하기 위해

22)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369쪽.

23) 愼鏞廈, 앞의 책, 451쪽.

尹炳奭, 앞의 책, 179쪽.

수차 회합을 가졌다. 이도구 북하마탕에서 대첩을 앞두고 10월 13일 대한독립군과 통합된 대한민국민군·신민단·대한의민단·훈춘한민회 등의 대표자가 모여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홍범도가 연합부대의 지휘를 담당하기로 결의하고, 군자금 모집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민회는 <광복사업의 성패의 秋>라는 포고문을 발하고 한인 매호당 10원, 그리고 전 재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군자금으로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이도구 일대에 주둔해 있던 홍범도 연합부대는 삼도구 청산리 일대에 진주한 김좌진의 대한군정서와도 연합작전을 협의하였다. 일본군이 삼도구 忠信場 上村에 도착하기 전날인 10월 10일 廟嶺에서 개최한 독립군 간부회의가 그것이다. 대한군정서와 연합부대의 지휘관들이 참가한 작전회의에서 한때 군정서 부총재 玄天默 등이 주장한 피전책을 채택해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가능한 피한다는 전략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즉 일본군과의 대규모 교전사태는 중국 정부의 반감을 야기하고 나아가 일본군의 병력증파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⁴⁾ 그러나 일본군의 과상적 대공세에 직면하게 된 독립군은 교전 회피가 도리어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자 적극적인 응전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하였다.

(4) 청산리대첩

가. 백운평전투

청산리대첩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후 일주일 동안 화룡현 이도구·삼도구 일대에서 아즈마 마사히코(東正彦) 소장이 지휘하던 일본군 주력부대를 맞아 白雲坪戰鬪를 시작으로 완루구·어랑촌·천수평·봉밀구·고동하 등지에서 벌인 대소 10여 회의 회전에서 독립군이 거둔 승첩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 최초의 전투인 백운평전투 교전지가 삼도구의 청산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곧이어 벌어진 여러 전투들까지도 ‘청산리’라는 지명으로 묶여 대첩의 이름으로 따오게 된 것이다.

간도를 침략한 일본군 가운데 청산리 일대로 들어온 東支隊는 용정과 무

24)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381쪽.

산 방면에 진출하여 安圖 남쪽, 和龍 북방에 위치한 天寶山에 주력을 두고 있었다. 독립군이 백두산록에 자리잡은 안도현이나 그 북쪽의 敦化縣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임무를 맡은 이 부대는 10월 20일을 기하여 야마타(山田) 대좌가 지휘하는 이른바 야마타聯隊를 선두로 독립군에 대한 소위 토벌작전에 들어갔다.²⁵⁾ 이에 따라 야마타연대는 두 부대로 나뉘어 한 부대는 삼도구에서부터, 그리고 다른 한 부대는 이도구 蜂蜜溝에서부터 각각 老嶺 방면으로 진출토록 하였다. 그리고 무산수비대 역시 石人溝를 거쳐 老嶺 방면으로 진출케 함으로써 대한군정서 독립군을 사방에서 포위하려 하였던 것이다.²⁶⁾

한편 아즈마 마사히코 소장이 직접 인솔하는 주력부대는 이도구 서북방에 있던 홍범도 지휘하의 독립군 연합부대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였다. 즉 아즈마支隊 주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그 가운데 한 부대를 천보산 방면으로 출동시켜 남하케 하고, 다른 한 부대를 이도구로부터 서진케 함으로써 독립군 연합부대를 앞뒤에서 포위 공격하려 한 것이다.

청산리 일대로 투입된 동지대의 병력 규모는 중화기로 무장한 정예기병과 포병을 포함해 약 5천명으로 추산되었다. 곧 이와 같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일본군은 10월 20일을 기해 대한군정서 및 독립군 연합부대에 대해 총공격을 가한다는 작전을 수립해 놓았던 것이다.²⁷⁾

이상의 작전계획에 따라 야마타연대의 주력은 20일부터 대한군정서 독립군 ‘토벌’을 위해 삼도구에서 청산리를 향해 진군해 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군정서의 김좌진 사령관은 적과 대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형을 갖춘 백운평 고지에도 독립군을 전투편제로 이중 매복시켜 놓은 뒤 적의 접근을 기다렸다.²⁸⁾

이 때 대한군정서의 부대 배치는 2개의 ‘梯隊’로 이루어졌다. 우선 평소예 훈련이 적은 보병의 일부와 비전투원으로 제1제대를 편성한 뒤 총사령관

25)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216~217쪽.

26) 《問島出兵史》 上, 55~60쪽.

27) 金靜美, 앞의 글, 158쪽.

28) 《獨立新聞》, 1921년 3월 1일, 〈北路我軍實戰記〉.

김좌진의 지휘하에 후방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관연성소 졸업생으로 구성된 연성대를 중심으로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정예부대로 제2제대를 편성한 뒤 연성대장 李範奭의 지휘하에 최전선을 맡게 하였다. 교전지를 기준으로 우측 산허리의 1개 중대는 李敏華, 좌측 산허리의 1개 중대는 韓根源이 각각 지휘를 맡았으며, 정면 우측의 1개 중대는 金勳, 좌측의 1개 중대는 李敎成, 그리고 정면 중앙에는 이범석이 직접 지휘를 맡아 매복 대기하고 있었다.²⁹⁾

독립군이 매복한 지점은 청산리 골짜기 중에서도 폭이 가장 좁고 좌우 양편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솟은 곳이었다. 그 사이에 백운평이라 부르는 ‘공지’가 있어 청산리계곡을 통과하는 단 하나의 오솔길이 나 있었다.³⁰⁾ 백운평의 독립군 매복지는 그 공지를 바로 내려다보는 깎아지른 절벽 위였다. 이민화 부대가 매복한 백운평 우측 지대는 경사가 60도나 되는 산허리였고, 김훈 부대가 매복한 정면 우측은 깎아지른 절벽이었다.³¹⁾

야마타연대의 전위부대인 야스카와(安川) 소좌 인솔하의 1개 중대는 독립군의 매복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21일 아침 백운평으로 들어왔다. 일본군이 독립군 매복지점으로부터 불과 10여 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근접하자, 김좌진 장군은 공격명령을 내렸다. 600여 명의 독립군은 계곡 중앙의 공지에 다다른 일본군을 향해 일시에 집중사격을 개시하였다. 일순간에 기습을 당한 야스카와 전위부대는 독립군의 매복지점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열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30여분 간의 집중공격 끝에 독립군은 200여 명의 전위부대 전원을 섬멸하는 커다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³²⁾

야스카와전위부대의 전멸에 뒤이어 뒤따르던 야마타연대의 주력부대도 기

29) 李範奭, 《우동불》(三育出版社, 1986), 25·30쪽.

30) 李範奭, 위의 책, 25쪽. 이범석은 백운평전투의 교전 현장의 지형과 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군 장교의 정찰 보고에 의하면 이 골짜기를 따라 십여 리를 더 들어가면 5, 6리 길이에 2리 넓이의 빈 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한 줄기 실개천이 흐르고 그 양 옆은 칼로 깎아세운 듯한 산이 있다. 또 그 주위는 무성한 밀림에 둘러싸여 단 한 사람도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없는 철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31) 愼鏞度, 앞의 책, 464쪽.

32)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 〈北壘島에 在한 我 獨立軍의 戰鬥情報〉.

관총과 山砲 등의 중화기를 앞세우고 백운평 교전지를 향해 돌격해 왔다. 그러나 주력부대 역시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던 독립군의 집중공격을 받게 되자 사상자만 속출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독립군을 협공하기 위해 고지를 따라 돌격하면서 우회하였으나 절벽 위를 선점한 독립군의 화력을 당할 수가 없었다. 야마타연대는 최후로 부대를 약간 후퇴시켜 전열을 재정비한 뒤 산포와 기관총의 엄호하에 정면과 측면에서 마지막 돌격을 시도하였다. 독립군은 고지 위의 완전히 은폐된 지점에서 이들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일본군은 끝내 백운평에다 다수의 시체를 남겨둔 채 퇴각하였다. 결국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이 전투에서만 일본군 2~3백명을 사살하는 공전의 대승을 거두었다.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퇴각하는 야마타부대를 추격하지 않고 이도구 방면으로 길을 떠나 밤을 새워 甲山村으로 행군하였다. 이도구 북쪽 천보산 방면에서 안도현으로 돌아 청산리로 침입해 오는 야마타연대의 별동 기병대에게 퇴로를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³³⁾

나. 완루구전투

完樓溝戰鬪는 백운평전투에 이어 10월 22일 홍범도가 지휘하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도구의 완루구에서 아즈마지대 주력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이다. 대한군정서 독립군이 백운평전투 직후 甲山村으로 이동하던 때에 아즈마지대의 주력은 홍범도 휘하의 독립군 연합부대를 ‘剿滅’하기 위해 두 부대로 나뉘어 이도구에서 남, 북 완루구의 두 길을 따라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에 홍범도는 미리 설정한 저지선에서 그들을 맞아 전투를 개시하는 한편, 예비대로 하여금 우회해 오던 아즈마지대의 일부를 측면 공격케 하였다.³⁴⁾

북완루구로 진격하던 아즈마지대의 일부는 홍범도 부대의 이러한 전략을 감지하지 못하고 독립군 예비대가 빠져나간 후 그 중간 사잇길 고지에 들어간 아즈마지대의 다른 일대를 독립군으로 오인해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고지에 들어선 아즈마지대의 일부는 한쪽에서는 독립군으로부터, 다른 한쪽

33)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291쪽.

34)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 〈北嶽島에 在한 我 獨立軍의 戰鬪情報〉.

에서는 아즈마지대의 다른 부대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되고 말았다. 즉 독립군 연합부대를 포위공격하던 아즈마지대의 남·북 두 부대는 홍범도가 지휘하는 부대에 의해 전면에서 공격을 받는 한편, 독립군 예비대의 뛰어난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자살전까지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홍범도 휘하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 전투에서 일본군 400여 명을 사살하는 커다란 전과를 올린 것으로 확인하였다.³⁵⁾

다. 천수평전투

泉水坪戰鬪 직후부터 밤새 행군을 계속한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이튿날인 10월 22일 새벽에 이도구 갑산촌에 이르렀다. 이때 독립군은 갑산촌 주민들로부터 인근의 泉水坪에 일본군 기병 1개 중대가 야영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군정서군은 다시 강행군을 재촉하여 연성대를 앞세우고 한 시간 가량 더 행군한 끝에 천수평에 당도할 수가 있었다. 천수평에는 120여 명의 기병중대 병력이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

독립군은 일본군을 완전히 포위한 채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새벽녘에 불의의 기습을 당한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허둥대기만 할 뿐이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일본군 기병대는 어랑촌 본대로 탈출한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사살되었다.³⁶⁾

라. 어랑촌전투

청산리대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전투는 이도구 어랑촌 일대에서 벌어진 격전이었다. 어랑촌은 국치 전후 함북 鏡城郡 漁郎社의 주민 10여 호가 이도구에서 서쪽으로 10리 가량 떨어진 골짜기 안에 이주하여 개척한 한인 마을이다.

전투는 어랑촌 마을 일대에서 10월 22일 하루 종일 벌어졌다. 당일 새벽 천수평에서 살아남은 네 명의 일본군이 어랑촌 앞 二道河 부근에 주둔해 있던 아즈마지대 본대에 참패 사실을 알려왔다. 이에 본대에서는 가노우(加納) 기병연대를 필두로 한 대부대를 천수평으로 급파시켰다. 한편 천수평전투 직

35) 위와 같음.

36) 李範奭, 앞의 책, 40~45쪽.

후 대한군정서군은 어랑촌 방향의 鷄南 부근 ‘野鷄골’로 내려와 그곳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뒤 출동한 일본군 대부대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어랑촌전투에는 독립군과 일본군 양쪽 모두 全力이 투입되었다. 독립군측에서는 백운평과 천수평에서 연승을 거둔 대한군정서 600명과, 완루구에서 완승한 뒤 이곳으로 이동해 온 홍범도 휘하의 연합부대 1,500명이 총동원되었다. 반면 이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 병력규모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어랑촌 부근에 임시 본대를 둔 아즈마지대 소속의 보병·기병·포병 등 주력 5천여 명이 이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일본군은 독립군에 비해 병력과 화력 양면에서 월등히 우세한 입장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는 독립군측에 귀착되었다. 투철한 항일의지로 무장한 독립군은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뛰어난 전술을 구사해 일본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며 대규모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어랑촌전투에서 독립군측은 먼저 대한군정서군이 어랑촌 후방의 고지를 장악하여 일본군의 진출로를 차단하고, 이어 홍범도 휘하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같은 고지 최고봉에 포진하여 대한군정서군을 지원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일본군은 우세한 전력만을 믿고 희생을 무릅쓴 공격을 감행해 왔다. 독립군은 지형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본군을 향해 조준사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단시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자 공세를 멈추고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공격을 단념하지는 않았다. 일본군 기병대는 천수평의 서방 고지를 따라 독립군의 측면공격을 시도하였으며, 포병과 보병은 독립군 진영의 정면에서 격렬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오전 9시부터 재개된 일본군의 공세는 해질 무렵까지 반복되었다. 그러나 지형상 우세를 점한 독립군은 일본군의 파상공세를 적절히 차단하면서 효과적인 반격을 가하며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의 피해는 늘어만 갈 뿐이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이러한 어랑촌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를 거두어 일본군 300명을 사살한 것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측은 참패 사실을 숨기고 단지 전사자 3명, 부상자 11명이라는 허위기록을 남겼다.³⁷⁾ 한편 이

전투에 참전하였던 이범석은 가노우 연대장을 비롯해 일본군 1천여 명을 살상한 것으로 추산하였고, 독립군도 1백여 명이 사상한 것으로 회상하였다.³⁸⁾

어랑촌전투 후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안도현의 黃口嶺을 향해 소부대로 나뉘어 행군하였다. 또한 행군과정에서도 일본군과 도처에서 산발적인 혈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완구구 산림 속에서 하룻밤을 지낸 대한군정서군은 23일 낮 맹개골 산림 속에서 일본군 30여 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기습함으로써 기병 1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맹개골로부터 20여 리 떨어진 萬麟溝에서도 50여 명의 일본군과 조우전을 벌여 30여 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와 같은 맹개골전투와 만기구전투도 청산리대첩의 여러 전투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 천보산전투

김좌진이 거느리는 대한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인솔하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10월 24~25일間に 천보산 남쪽 부근에서 중대 규모의 일본군을 공격한 끝에 대승을 거두었다. 먼저 대한군정서 소속의 한 부대는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천보산 부근의 은·동광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 1개 중대를 습격, 큰 타격을 입혔다. 이때 일본군은 局子街(연길) 주둔 일본군 중대 병력과 기관총 소대의 증파를 요청하였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식량조달을 위해 천보산 부근으로 파견되었던 홍범도 연합부대 소속의 한 부대도 10월 25일 새벽 현지 주둔 일본군을 기습공격한 끝에 대승을 거두었다. 교전 직후 일본군 대대병력이 천보산으로 급히 파견되었던 것도 이러한 독립군의 대승에 기인한 것이었다.³⁹⁾

바. 고동하곡 전투

청산리대첩 가운데 마지막 전투인 古洞河谷전투는 10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에 벌어졌다. 일본군이 고동하곡으로 독립군을 추격해 오던 중 홍

37)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223~224쪽.

38) 李範奭, 앞의 책, 52쪽.

39) 愼鏞廈, 앞의 책, 492~494쪽.

범도 휘하 독립군의 매복전에 걸려 참패를 당한 것이다. 고동하는 老嶺 동남쪽에서 발원해 화룡현 관내의 和龍鄉을 거쳐 안도현 경내로 들어가는 하천으로 송화강 수계에 속한다. 교전지점은 현재의 八家子林業局 관할하에 있는 古洞河林場 남쪽으로 10 Km 정도 떨어진 골짜기이다.⁴⁰⁾

홍범도 독립군을 탐색하던 일본군은 25일 밤 고동하 골짜기에서 독립군의 흔적을 발견하고 심야에 이이노(飯野) 소좌가 이끄는 2개 소대를 앞세워 야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홍범도 독립군은 일본군의 접근과 야습에 대비해 주변 각지에 매복해 있던 중이었다. 이와 같이 만반의 대비를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군이 돌격해 오자 독립군은 여러 방면에서 즉시 반격을 가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45분간 계속된 전투 끝에 독립군은 일본군 2개 소대 가운데 100여 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일제의 한 전투보고서에서도 이 전투 당시 “동쪽 하늘이 점차 밝아오자 (살았다는 안도감에서 일본군) 장졸들의 얼굴마다 기쁨이 나타났다”고 술회하였을 정도로 일본군이 참패를 당했던 것이다.⁴¹⁾

(5) 청산리대첩의 전과와 의의

항일무장독립운동사상 공전의 대승을 기록한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이 거둔 구체적 전과를 파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호 적대관계에 있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투 현지였던 중국측의 자료마다 각기 그 내용이 달리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과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측이 절대적으로 압승한 사실을 기록한 점에서는 대개 일치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이 올린 전과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해 임시정부의 군무부는 김좌진이 인솔한 대한군정서의 전황보고에 근거하여 청산리대첩의 총체적인 전과에 대해 일본군의 전사자가 연대장과 대대장 한명씩을 포함해 1,257명이며, 부상자는 장교 이하 200여 명이라고 밝

40) 허송암, <청산리전역에 대하여> (《룡정3·13반일운동80돌기념문집》, 연변인민출판사, 1999), 311쪽.

41) 愼鋪廈, 앞의 책, 494~497쪽.

했다.⁴²⁾ 이보다 앞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도 “김좌진씨 부하 6백 명과 홍범도씨 부하 300여 명은 대소전투 10여 회에 왜병을 격살한 자 1,200여 명”이라 하여 군무부 보고와 비슷한 규모로 기술하였다.⁴³⁾ 한편 박은식은 일본군 전사자를 2,000여 명으로 기록하고, 청산리대첩에 직접 참전한 이범석은 그의 회고록에서 일본군의 사상자를 3,300명으로 파악함으로써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전과를 약간 초과하고 있다.⁴⁴⁾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하지만 이상과 같은 한국측 전과 기록은 대체로 독립군의 압승을 뒷받침하는 면에서는 그 윤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측 기록은 청산리에서의 참패 사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자의로 축소함으로써 객관적 자료로서의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다. 청산리대첩 직후 일제 신문에서는 현지 영사의 비밀보고에 의거해 “아군(일본군) 전몰장병 가노우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 중대장 5명, 소대장 9명, 하사 이하 병졸 900여 명”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제는 전투 보고서에서 대한군정서 독립군이 청산리 부근의 4일間に 걸친 전투에서 일본군 700명을 사살하고 총기 200정과 포 2문을 노획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였다.⁴⁵⁾ 그리고 최초의 백운평전투에서는 병졸 3명 전사, 하사 1명과 병졸 2명이 부상하였을 뿐이고, 대규모의 접전인 어랑촌전투에서조차도 歩卒 1명과 기병 2명이 전사하고, 보졸 4명과 기병 7명이 부상한 정도로, 그리고 홍범도 부대의 야간 매복전에 걸려 일본군 추격대가 거의 전멸된 고동하곡의 격전에서는 아예 “아(일본군)의 피해 없음. 적(독립군)의 사상자 30명”이라고 하여 전황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였던 것이다.⁴⁶⁾

42) 《獨立新聞》, 1921년 2월 25일, 〈大韓軍政署報告〉.

43) 《獨立新聞》, 1921년 1월 21일, 〈我軍隊의 活動〉.

44)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上海: 維新社, 1920), 185쪽.

李範奭, 앞의 책, 58쪽.

45) 愼鏞廈, 앞의 책, 500쪽.

李範奭, 위의 책, 59쪽.

愛國同志援護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2, 1956, 314쪽.

46) 尹炳奭, 앞의 책, 198쪽.

그러나 간도주재 일본 총영사는 청산리대첩 직후 본국의 외무대신에게 다음과 같은 비밀 급전을 보내 일본군의 참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일본군 담당구역내에서의 불령선인 토벌은 이미 각 부대가 모두 일단락을 고하였다. 그 효과는 일찍이 조선군(일본군 제19·20사단)이 2개 연대 병력으로 2개월 동안에 소탕할 수 있다고 믿은 기대에 반해 성적은 案外에 생각과 같지 않아서, 말하자면 다소 실패로 끝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304쪽; 愼鏞廈, 앞의 책, 502쪽 재인용).

한편 독립군측에서도, 일본군의 피해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상당한 인적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군의 정보기록에서도 독립군측의 피해에 대해 백운평전투에서 16명, 어랑촌전투에서 60명 정도가 전사하고, 이어 고동하곡전투에서는 30명 가량이 사상한 정도로 기술하였다.⁴⁷⁾ 이범석은 대한군정서 독립군의 경우 전사 60여 명, 부상 90여 명, 실종 200여 명으로 파악했지만, 실종자는 그후 대부분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⁴⁸⁾

독립군의 피해상황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임시정부 파견원 安定根이 상해 임시정부에 제출한 비밀 보고서이다. 여기서 안정근은 10월 22일부터 3일간 여러 전투에서 300여 명에 달하는 독립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국 독립군의 전체 피해 규모는 여기에다 21일의 백운평전투와 25~26일의 고동하곡전투 등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이 입은 인적 손실의 규모는 350여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⁴⁹⁾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은 무기와 병력면에서 절대적 우세를 자랑하던 이른바 무적황군 일본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렇다면 독립군이 이처럼 압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과연

47) 위와 같음.

48) 李範奭, 앞의 책, 58쪽.

49) 愼鏞廈, 앞의 책, 500~501쪽.

무엇이었던가. 이 문제는 독립군과 일본군 양쪽의 상대적 전력 분석작업 외에도 3·1운동 이후 간도 한인사회의 격동하던 독립열기와 독립전쟁간의 유기적 관계의 해명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독립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직접적 요인으로는, 정신적 측면에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희생을 각오한 독립군의 결사항전 투지를 무엇보다 먼저 들 수 있다. 대한군정서 총재 徐一이 1921년 1월 청산리대첩의 전말을 상해 임정에 보고한 글 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인 대목이 독립군의 이러한 결사항전 의지를 웅변해 준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3일간의 전투에 糧道가 俱絶되어 다만 5~6塊의 감자로써 餓腸을 僅充하고, 一日一夜에 능히 150여 리의 험산밀림을 통행하되 一毫도 奪氣함이 無하며, 전투 후에 또한 수천백리 森林長雪中을 통과하여 凍傷한 자가 不少하되 半點의 怨悔가 無함은 참으로 독립의 장래를 위하여 희망한 바이더라(《독립신문》 제95호, 1921년 2월 25일).

조국광복이라는 확고한 투쟁목표를 향한 독립군의 이러한 능동적 항전의지는 형식적 군제의 틀에서만 움직이던 일본군의 피동적 임전자세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전술·전략면에서도 독립군은 일본군을 압도하였다. 독립군은 삼림과 계곡 등의 지형과 지세를 적절히 활용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뒤 접근해 오는 일본군을 향해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군은 화력과 병력의 우세만 믿고 삼림과 계곡에서 벌어질 전투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대로 진군하는 무모한 작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길목에서 매복한 독립군의 타격목표가 되었다. 백운평전투와 고동하곡전투 등의 예가 독립군이 구사한 전형적인 유격전술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독립군이 일본군에 비해 전술·전략면에서 우세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독립군 지휘부의 작전수립·군사운용 능력이 일본군 지휘관을 월등히 압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직접적 요인 외에 거시적으로 볼 때 간도 한인사회의 한층 고

조된 민족역량이 대첩을 올리게 한 근원적인 요인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군의 모체였던 현지 한인사회에서는 독립전쟁에 즈음해 군수지원과 정보제공 등 물심양면으로 헌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동안 독립군을 양성해 온 간도와 연해주의 한인사회는 국내진입작전이 개시된 1919년 여름부터 독립군의 항전에 모든 뒷바라지를 다해 왔었다. 가난한 농민이 주축이 된 한인사회는 경제적으로 생활기반조차 확고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군자금을 내어 무기를 마련케 하였고, 군량·피복 등의 군수물자를 전담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인 이주민들은 일본군의 동태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정보활동을 자원하였고 독립군의 각종 통신연락을 담당하였다. 때로는 지형·지세를 적절히 이용해야 하는 독립군이 부대를 이동하거나 배치할 경우, 현지 안내를 자원하기도 하였다. 천수평전투는 현지 주민의 정보로 일제 기병대를 기습공격하여 승리한 경우이고, 완루구전투 역시 현지 한인이 제공한 일본군 동향 정보가 승전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1920년 10월의 청산리대첩은 1910년 국치 이후 간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만주와 노령 연해주 등지의 국외 한인사회에서 경주한 ‘독립전쟁론’의 결실이였다. 국치 후 국내외 민족운동자들은 일제로부터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국외 각지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민족의 군대인 독립군을 양성함으로써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일제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독립전쟁론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독립을 향한 군은 신념과 치절한 노력이 3·1운동을 계기로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등 독립전쟁으로 일시에 표출된 것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독립군의 독립전쟁은 3·1운동에서 보여준 한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계승해 일제 침략세력으로부터 한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는 민족의 자주독립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쾌거이기도 하다.

〈朴敏泳〉

3. 경신참변과 자유시사변

1) 독립군의 북정

청산리대첩에 참여한 대한군정서 등 여러 독립군 부대는 대첩이 끝난 직후 지체없이 북쪽 중·소 국경 부근의 密山을 향해 대장정에 올랐다. 먼저 대한군정서 독립군은 어랑촌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가며 북정길에 오르기 위해 즉시 부대를 이동시켰다. 사령관 김좌진의 인솔하에 대한군정서군은 야포와 기관총 등 중화기를 비롯해 총기와 탄약을 2량의 우마차에 만재하고 청산리 일대를 벗어나 10월 26~27일 경에는 화룡현과 안도현의 경계인 黃口嶺村 부근에 도착해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를 기다렸다. 대한군정서군은 그후 11월 7일 경 황구령을 출발한 뒤 五道楊岔로부터 삼림계곡을 따라 천보산 서쪽 부근을 돌아 15일 경 왕청현 春陽鄉 神仙洞에 도착하였으며, 이어 여러 독립군부대가 집결하던 密山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후한 시기에 홍범도와 연합하였던 여러 부대 가운데 대한국민군·대한의군부·대한광복단 등의 독립군단도 대한군정서의 행군로와 비슷한 길을 따라 밀산을 향해 북정을 단행하였다.¹⁾

한편 홍범도가 인솔한 대한독립군과 훈춘한민회 및 대한의민단 등의 독립군 연합부대 600여 명은 고동하곡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청산리대첩을 마무리한 다음 곧바로 안도현 산림지대로 행군하였다. 그리하여 홍범도를 주축으로 한 이들 연합부대는 서간도 유하현 哈泥河의 본영을 떠나 안도현 奶頭山 부근 三人班에서 새로운 병영을 건설하고 있던 池青天 휘하 400여 명의 서로군정서와 합류함으로써 단일부대를 편성할 수 있었다. 총사령관에 홍범도, 부사령관에 지청천이 각각 취임한 통합군단 역시 곧바로 밀산을 향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다.

1)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8, 406~408쪽.

《獨立新聞》, 1921년 1월 21일.

청산리대첩에 참여한 여러 독립군단과는 달리, 중국측과 근거지 이동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진 직후의 장정 초기부터 羅子溝와 밀산 방면을 향해 그대로 북상을 단행한 독립군도 있었다. 최진동 휘하의 군무도독부를 비롯해 대한의군부·신민단·훈춘한민회의 일부 독립군이 그러하였다. 왕청현 나자구에 집결한 이들 독립군 1,000여 명은 이범윤을 명의상 총재로 추대하고 최진동을 사령관으로 하는 大韓總軍府를 조직한 뒤 연해주 방면으로부터 기병대의 내원을 받으면서 일본군과 교전할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그후 대한총군부도 다른 독립군이 밀산 방면으로 북상함에 따라 그곳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모든 간도 독립군이 밀산으로 북상한 것은 아니다. 북정한 독립군 가운데 처음부터 본대에서 이탈해 다른 곳으로 향한 병력도 있었으며, 중도에 낙오자도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북간도의 여러 독립군 부대는 청산리대첩 후 중·소 국경 부근의 밀산을 향해 북상길에 오르게 되었다.

독립군의 집결지였던 밀산은 1910년 전후부터 민족운동자들이 국외 독립운동기지의 하나로 경영하기 시작한 곳이었다. 청산리대첩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홍범도도 1910년대 중반 이곳 蜂密山 일대에 주둔하며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었다. 정태가 밀산을 ‘조선 독립군의 발상지’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²⁾

그러나 밀산은 많은 독립군을 장기간 수용하기에는 현지 한인사회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곳이었다. 이에 밀산에 주둔한 독립군 지도자들은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 소모된 전력을 보충 증강한 뒤 새로운 항일전의 방향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해주는 서북간도와 마찬가지로 1910년 전후부터 국외 항일운동의 중추기지로 터전을 닦아오던 곳이었고, 20만에 이르는 대규모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의 새로운 활동근거지 개척의 適地로 자연히 부상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당시는 볼셰비키혁명이 시작된 직후로, 볼셰비키 혁명정부가 피압박 약소민족의 해방투쟁에 대한 후원을 공약하던 때

2) 朴敏泳, 《大韓帝國期 義兵研究》(한울, 1998), 221~223쪽.

였다. 불세비키의 이러한 약소민족 해방투쟁 원조 약속은 만주 독립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연해주 이동을 재촉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독립군단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어 연해주로 이동할 것을 결정한 뒤, 하나의 통합된 독립군단으로 당당히 진군키 위해 大韓獨立軍團을 편성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은 한 개 여단 밑에 3개 대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개 대대는 3개 중대, 1개 중대는 3개 소대로 각각 구성되었고, 1개 소대의 구성원은 27명으로, 총병력이 3,500여 명에 달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의 총재는 대한군정서의 지도자였던 徐一이 맡았으며, 부총재에는 청산리대첩의 명장인 홍범도와 김좌진·曹成煥 등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총사령에는 金奎植, 참모총장에는 李章寧, 여단장에는 서로군정서 사령관이던 池青天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金昌煥·趙東植·尹擎天·吳光鮮 등이 중대장을 맡았다.³⁾

대한독립군단 편성에 합류한 중요 부대로는 서일을 총재로 한 대한군정서를 비롯해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그리고 대한국민군·훈춘한민회·대한신민단·군무도독부·대한의군부·血誠團·野團·大韓正義軍政司 등이었다. 그리하여 단일편제의 독립군 연합체인 대한독립군단은 1921년 1월초 러시아의 연해주 이만으로 넘어가 자유시로 향하는 새로운 장정을 시작하였다.⁴⁾

만주 독립군이 청산리대첩 직후부터 장정길에 올라 자유시로 이동하기까지의 행군은 실로 고난에 찬 여정이었다.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등 이들 독립군이 겪은 고통과 고단한 형세는 1921년 9월 대한독립군 북만주 통신부 ‘리증실’이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보고서인 <알려드리는 글>에 다음과 같이 생생히 나타나 있다.

삼가 따로 쓴 두장과 함께 사죄나이다. 남북만주 여러 군단이 성립됨이 이미 삼년이라 요량함이 없음은 아니오나 자랑할 만한 열매를 얻지 못함은 깊이

3)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공보처, 1947), 99쪽.

4) 尹炳奭, 《獨立軍史》(지식산업사, 1990), 208~211쪽.

유감되는 바인가 하나이다. 지남으론 선령의 뜻을 잇고자, 지금으론 이십조의 동포를 건지고자, 다음으론 억만대 자손에게 복록을 주고자 하는 우리 독립군의 두 어깨가 이미 무거웠으며 따라 한 두 해에 이를 바가 아닌가 하나이다. 조선에게는 열여주신 낙원을 잃은 죄, 제 몸에게는 배달겨레의 본뜻과 본성을 나타내지 못한 죄, 자손에게는 씻지 못할 부끄럼을 끼친 죄, 슬프다. 이것이 어깨충 받들어충 하는 독립군의 죄 뿐이나. 물론니, 형제여, 형제의 죄도 있거든 함께 받고자 하나이다. 밤과 낮을 이어 전진궁궁하는 바는 동포의 도와주시는 뜻, 깊이 바라시는 뜻을 저버릴까, 최후의 일인까지 건디지 못할까 함이오니 … 저희는 이뿐으로 최후의 마음을 결정하였나이다. 때는 일기가 혹독히 추운 겨울이라 몸에는 숨을 붙이지 못하고 발에는 홑감발에 미투리뿐인 그 모양이 어떠하오리까. 할 일 없어 중동선 북으로 향하여 첫째는 군인의 열고 줄임을 면코자 하며, 둘째는 여러 군대를 모으고자 하니 먼 데는 수천리요, 가까운 데는 칠팔백리 되는 험한 산골 뻘뻘한 산림을 지나는지라, 이 일이 어찌 쉽소리까. 더구나 중동선 북에는 우리 동포의 집이 드물어서 몇백명 군인의 의복과 양식도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사세에 의지하며 다시 아령 이만으로 가게 되었나이다. 아령 이만으로 간 뒤에 여러 군단이 합하여 전날 명의를 모두 작소하고 대한독립군이라 이름하여 한 기관 아래에 지휘를 받게 되었더라. 이만은 일·아 사이에 이른바 완충의 땅이므로 적의 교섭이 심하여 다시 아령 흑하편으로 가게 됨에 전부가 다 그곳으로 가면 첫째 내, 외지에 교통이 편치 못하고 또는 모두 볼세비키뎌이 우리 독립운동에 편치 못한 일이 많으며, 겹하여 후방의 수습으로 말미암아 중요 임원 모모는 중령에 있게 되었나이다. 후방의 수습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곤란함이 많아 열에 아홉이 뜻과 같지 못한지라, 간도에 있어서는 작으나 크나 무기를 사며 사관을 가르치는 경비는 모두 간도 사시는 동포의 의연으로 썼거니와 한번 간도를 떠난 뒤에는 한푼의 경비가 극히 어렵고 어디어디서 약간의 구제비를 보내주셔서 가이없이 감격하나, 이것이 불피어나는 화로에 눈송이 집어넣기라. … 슬프다, 물없는 웅덩이의 고기요, 불붙는 기둥위의 제비라. 이를 뉘 능히 구하며, 뉘 능히 살게 하리요. 많으나 적으나 우리 동포가 아니면 그 뉘라서 돌아보오리까. 감히 비유나니 밑없는 구덩이에 빠지 무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령 자유시에 있는 이천의 군대는 입고 먹는 것을 모두 아인이 공급하오니 비록 나라가 다르면 인종이 각빛이나 이와 같이 보호하여줌이 또한 감사한 일이오며 아직까지는 별일없이 지내나이다 (《雲南李承晩文書》 7, 561~568쪽).

2) 경신참변

무장독립군을 비롯한 간도일대의 항일독립운동세력을 ‘초토화’할 목적으로 투입된 일본군은 상술하였듯이 독립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였다. 일본군 북만주 파견대 역시 나자구 老母楮河를 비롯해 몇 군데서 장정중인 독립군과 교전을 벌였지만 역시 뚜렷한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일본군 보고서에서 “(일본군은 독립군측에) 섬멸적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독립군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자의 대부분을 놓쳐 버렸다”라고 한 대목은 완전히 실패로 귀착된 일본군의 ‘초토화작전’ 결과를 생생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⁵⁾

독립군에 대한 탄압이 이처럼 실패로 귀착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결국 한인사회가 독립전쟁에 대해 물심 양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성원한 결과이기도 하다. 곧 현지 한인사회가 무장독립군의 초석으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 셈이었다. 그러므로 간도를 침략한 일본군은 독립군 탄압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현지 한인사회에 대해서는 초토화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이다. 일제의 무장군대가 비무장 민간의 한인사회에 대해 인적·물적 양면에서 무참히 짓밟은 만행, 곧 경신참변은 ‘인류사의 저주받을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간도 한인사회에서 자행된 경신참변은 일제 침략군에 의해 1920년 10월초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되었다. 일본군은 간도 도처에서 한인 촌락을 습격 방화하였다. 각지 촌락의 무장하지 않은 한인 주민들은 침략군에 의해 임의로 ‘불령선인’으로 지목되어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이러한 만행은 일본군대가 간도에서 퇴각하는 1921년 5월까지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일제의 ‘조선군’ 19사단 예하의 주력부대 가운데 하나인 키무라(木村) 支隊는 1920년 10월 20일 온성 부근에서 두만강을 건너 간도 침략을 개시하였다. 이 부대는 북간도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근거지와 마을들을 초토화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10월 22일 대한군정서의 근거지인 왕청현 西大坡와 十里坪 일대

5) 《間島出兵史》上(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2, 韓國史料研究所, 1970), 106쪽.

를 휩쓸었던 것도 이 부대였다. 십리평에 있던 대한군정서 병영과 7개 동의 사관연성소 건물이 이때 소각되었다. 이어 이 부대는 百草溝와 依蘭溝, 그리고 八道溝 등지에서 150명의 무고한 한인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⁶⁾

10월 30일에는 경신참변을 상징하는 사건인 獐巖洞慘變이 일어났다. 연해주로부터 침입한 일본군 제14사단 제15연대 제3대대장 오오카(大岡隆久)가 인솔한 77명의 병력이 용정촌 동북 25리 지점에 위치한 장암동으로 침입해 주민 33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가옥·학교·교회 등을 불태워 마을을 초토화하였다.⁷⁾ 40여 호 규모의 장암동은 이주 한인촌락으로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였다. 일본군은 주민 가운데 성인남자 33명을 한 곳에 집결시켜 처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야수적 만행을 자행하였다. 만행 다음날 캐나다 북장로회 선교사 푸트(富斗一, Foote, D. D)와 용정에서 제창병원을 경영하던 영국 선교사 마틴(閔山海, Dr. S. Martin)은 함께 장암동을 방문해 참변의 진상을 조사하고 참혹한 광경을 사진에 담아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었다. 마틴은 자신이 조사한 참변의 정형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술하였다.

날이 밝자마자 무장한 일본 보병부대는 耶蘇村을 빈틈없이 포위하고 골 안에 높이 쌓인 난가리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는 전체 촌민더러 밖으로 나오라고 호령하였다. 촌민들이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고 아들이고 헤아리지 않고 눈에 띄면 사격하였다. 아직 숨이 채 떨어지지 않은 부상자도 관계치 않고 그저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면 마른 짚을 덮어놓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불태웠다(姜德相, 《現代史資料》 28, 朝鮮 4, 676쪽).

장암동참변 외에도 한인학살의 사례는 허다하다. 한인 마을마다 10여 명 전후의 희생자는 예사였을 정도였다. 이씨 집성촌이었던 30여 호 규모의 연길현 의란구 南洞의 경우에도 마을 주민 거의 전부가 몰살당하였다. 마을의

6) 리광인, <‘경신년 대토벌’과 연변 조선족 군중의 반‘토벌’투쟁>(《한국학연구》 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2), 125쪽.

7) 車成瑟, <獐岩洞慘案에 關한 研究>(《獨立運動史의 諸問題》, 범우사, 1992), 202~204쪽.

어느 네 형제는 자기 집과 함께 한꺼번에 焚殺당하고 말았다.⁸⁾ 또 연길현 臥龍洞의 교사였던 鄭基善은 일본군에게 연길현 九水河 新興洞으로 끌려가 심문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군의 고문에 의해 안면 피부가 칼로 벗겨지고 안구가 빠져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고기덩어리’가 되고 말았다.⁹⁾ 뿐만 아니라 연길현 팔도구에서는 어린애 네 명이 일본군에게 처참히 刺殺당했고, 연길현 약수동에서도 사람을 죽여 불에다 태운 후 그 시체를 다시 강물에 던졌다. 또 일본군은 부녀자를 강간한 후 살해하였다. 연길현 小營子에서는 25명의 부녀자가, 그리고 이도구(현 화룡현 서성향 소재지)에서도 20여명의 부녀자가 강간당하였다.¹⁰⁾ 심지어는 2~3세 아이를 창끝에 꿰어든 일본군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비명을 들으며 이를 즐기는 사례조차 있었다.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은 한인이 당한 참변의 구체적 실상과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적나라하게 기술함으로써 일제의 야수적 죄악상을 규탄 고발하였다.

아아! 세계민족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자 수없이 많지만, 어찌 우리 겨레처럼 남녀노소가 참혹하게 도살을 당한 자 있을 것이리오. 역대 전쟁사상 군사를 놓아 살육 약탈한 자 수없이 많지만, 저 왜적처럼 흉잔 포악한 자는 들은 적이 없다. … 저 왜적이 우리 서북간도의 양민동포를 학살한 일 같은 것이야 어찌 역사상에 있었던 일이겠는가. … 각처 촌락의 민가·교회·학교 및 양곡수만석을 모두 불태웠다. 남녀노소를 총으로 쏘 죽이고, 칼로 찢어 죽이고, 매질하여 죽이고, 포박하여 죽이고,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발로 차서 죽이고, 찢어 죽이고, 생매장하고, 불에 태우고, 가마에 삶고, 해부하고, 코를 꿰고, 옆구리를 뚫고, 배를 가르고, 머리를 베고, 눈을 파내고, 가축을 벗기고, 허리를 베고, 사지를 못박고, 손발을 잘라서 인류로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일을 저들은 오락으로 삼아 하였다. 우리 동포는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죽고, 혹은 부자가 함께 참륙당하고, 혹은 남편을 죽여 아내에게 보이며, 혹은 형을 죽여 아우에게 보이며, 혹은 喪制로 魂魄 상자를 품고 난을 피하다가 형제가 함께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산모가 기저귀에 싼 어린애를 품고 화를 피하다가 母子가 같이 명을 끊었다. 그 밖에 허다한 일은 이루 다 적을 수 없다(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海: 維新社, 1920, 165~166쪽).

8) 《獨立新聞》, 1921년 1월 27일, 〈墾北來信〉.

9) 《獨立新聞》, 1921년 2월 5일, 〈間島慘狀別報〉.

10) 리광인, 앞의 글, 127쪽.

이와 같은 한인사회의 끔찍한 참변은 북간도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다. 서간도에서는 이른바 중일합동수색이 실시되던 1920년 5~8월 4개월에 걸쳐 우에다(上田)부대와 사카모토(坂本)부대 등의 일본군에 의한 한인학살이 자행되었다. 그 뒤 서간도를 침범한 관동군 소속의 스기야마(杉山) 보병대와 기병연대에 의해서도 북간도에서와 같은 양상으로 참변이 반복되었다. 서간도 가운데서도 특히 興京縣 旺淸門과 寬甸縣 일대에서 피해 정도가 극심해 왕청문에서만 305명이, 그리고 관전현 일대에서는 총 495명의 한인이 참화를 입었다. 왕청문의 西堡교회당과 江南교회당, 그리고 민족교육기관인 三成學校도 이때 일본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어 통화현과 유하현의 여러 한인 마을에서도 일본군의 만행에 의해 ‘屍山血河’를 이루었다고 한다.¹¹⁾

러시아 연해주지방에서도 1920년 4월부터 일제의 블라디보스톡 주둔군(浦潮軍)과 남부우수리 파견대에 의해 한인 참살이 자행되었다. 연해주 각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4월 초부터 볼세비키를 탄압하는 한편, 블라디보스톡(海參威)·하바로프스크(花發浦)·우수리스크(蘇王嶺)를 비롯한 연해주 도처에서 한인 민족운동 대탄압에 돌입해 마을을 습격 방화하고 한인들을 학살하였다. 4월 5일 일본군의 포위공격을 받은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은 초토화되었다. 신한촌에서만 300명 이상의 한인이 일본군에게 체포당했으며, 가옥은 물론 한민학교와 신문사 건물도 소실되었다. 블라디보스톡뿐만 아니라 우수리스크 거주 한인들 역시 참화를 입었다. 연해주 한인사회의 출중한 지도자이며 임시정부 재무총장에 추대되기도 한 崔在亨이 金利稷·嚴周必·黃景燮 등과 함께 참살된 것도 이때였다. 한편 4월 6일 일본군의 총공격을 받은 하바로프스크에서도 20명 이상의 한인이 희생되었다.¹²⁾ 이것이 이른바 연해주 4월참변으로, 연해주 도처에서 한인 70여 명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자료상의 한계로 경신참변 당시 간도 한인사회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와 실상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점을 감안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간도 파견원이 보고한 1920년 10~11월 두 달간의 통계만 보더라도

11) 《獨立新聞》, 1920년 12월 18일, 〈旺淸門附近的 慘狀〉.

12) 김승화 저, 정태수 역, 《소련 韓族史》(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113~114쪽.

도, 3,469명이 희생되고 170명이 체포되었으며 민가 3,209개동, 학교 36개교, 교회당 14개소, 곡물 54,045섬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다.¹³⁾ 이 통계가 11월 이후 이듬해 5월까지의 피해상황을 집계하지 않은 수치임을 감안할 때, 일본군 침략 기간 동안 입은 참화의 전체 규모는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¹⁴⁾ 만행 실상을 극도로 축소한 일본군측의 자료에서조차도 한인 494명을 살해하고, 민가 531개동, 학교 25개교를 소각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⁵⁾

일제의 대륙침략 前端으로 야기된 일본군의 간도침범과 그로 인한 경신참변은 일제에게 철저히 유린된 한민족의 고통을 상징하는 생생한 한 증좌가 된다. 또한 경신참변은 국방 직전 일제가 의병 등 항일세력 초토화전략으로 감행한 소위 남한대토벌작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제가 남한대토벌작전을 완료하고 난 뒤 한국병탄을 실현했듯이, 간도 한인사회의 저항세력에 대한 초토화전략을 감행함으로써 3·1운동으로 격동한 한민족의 독립열망을 철저히 분쇄하려 했던 것이다. 경신참변은 이런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조망되어야 할 것이다.

3) 자유시사변

자유시사변은 한국독립운동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1921년 6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일어난 이 사변은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 속에서 파생된 까닭에 사건의 전모와 성격을 일원적으로 규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곧 자유시사변은 러시아 극동공화국 및 볼셰비키의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간섭, 이로 인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갈등의 심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모순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한

13) 《獨立新聞》, 1920년 12월 18일, 〈西北間島同胞의 慘狀血報〉. 이 통계는 1920년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조사 기록을 제시한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 통계치와는 다소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는 희생자 총수가 3,106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14) 이런 맥락에서 경신참변 전기간 동안 한인 1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愼鍾度,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을유문화사, 1985, 510쪽).

15) 《間島出兵史》上, 108쪽.

꺼번에 분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1922년말 공산화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베리아 연해주지방의 정세는 대단히 복잡하고 혼미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볼셰비키혁명세력인 적위군과 반동세력인 백위군의 혼전 속에 일본·미국·영국·프랑스 등 연합군의 무력간섭과 시베리아에 수용되어 있던 체코군대의 반란 등으로 인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혼미한 정세를 보였던 것이다. 연해주 한인사회도 역시 현지의 복잡한 정세가 그대로 투영됨으로써 분열과 혼돈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자유시사변의 단초가 되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상 두 개의 분파, 이른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가 파생하게 된 배경도 이와 같은 연해주의 복잡한 정세에 기인한다.

자유시사변은 외형적으로 볼 때 연해주 내전기간에 파생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 두 계파간의 대립과 갈등의 분출 양상으로 나타났다. 볼셰비키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베리아 연해주에서는 통상 민족좌익운동으로 불리는 방편적인 공산주의운동의 조직과, 처음부터 볼셰비키와 직결된 한인공산주의 조직이 출현하였다. 전자는 1918년 6월 하바로프스크에서 결성된 李東輝·金立·朴鎭淳 등의 한인사회당을 말하고, 후자는 1919년 1월 이르쿠츠크에서 金哲勳·吳夏默 등에 의해 결성된 이르쿠츠크공산당 한인지부를 말한다. 양파는 뒷날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두 개의 고려공산당으로 대립하여 레닌정권에 경쟁적으로 접근하면서 한인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다. 자유시사변은 바로 이 과정에서 빚어진 참극인 것이다.¹⁶⁾

한편 1918년 4월 일본군의 블라디보스톡 상륙 직후부터 볼셰비키쪽에 가담하였던 한인들은 일찍부터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저항에 나섰다. 하바로프스크에서 1918년 6월말 100여 명의 한인부대가 결성된 것을 시발로 秋風(수이풍)·水淸(스찬)·포시에트 등지에서 한인무장부대가 결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1920년 초부터 연해주의 볼셰비키세력과 한인세력은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면서 일본군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한러 연합부대

16) 김창순, <자유시사변>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142쪽. 자유시사변 기술에서는 이 글의 주지를 크게 수용하였다.

가 1920년 3월에 아무르강 하구 태평양 연안의 항구인 니콜라예프스크(泥港) 주둔 일본군을 공격, 전멸시킨 니항사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일본군은 1920년 4월에 들어와 불세비키와 한인세력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돌입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때 일본군이 연해주 각지의 한인사회를 유린한 것을 4월참변이라 한다.

한인무장부대들은 연해주 일대에서 일본군의 탄압이 이처럼 가중되고 상대적으로 북쪽의 흑룡주 일대에서 극동공화국과 불세비키세력이 강화·안정됨에 따라 점차 흑룡주의 자유시(스보보드니, 舊 알렉시예프스크)로 집결하게 되었다. 일본군의 블라디보스톡 공격으로 불세비키를 따라 일찍 흑룡주로 올라간 이만군대와 다반군대 등의 한인무장부대도 자유시로 들어갔다. 이들 부대는 대개 200여 명 안팎으로, 이만군의 사령관은 김표토르, 다반군의 사령관은 최니콜라이였다.

한인무장부대들이 이처럼 자유시로 집결하게 된 것은 당시 러시아 한인사회의 임시정부로 등장한 대한국민회의의 노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무렵 대한국민회의가 연해주 각지의 한인무장부대로 하여금 흑룡주의 자유시로 집결토록 지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흑룡주의 한인사회는 불세비키가 이 지역에서 대세를 장악하자 한국독립운동의 안전지대가 흑룡주에 마련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1920년 3월 자유시에서 흑룡주한인총회가 발족된 것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다. 총회는 발족과 동시에 군대모집에 들어가 곧 400명의 1개 대대를 편성할 수 있었다. 이 부대는 러시아 극동공화국의 제2군단과 교섭한 결과 2군단 산하의 독립대대로 배치되어 한인보병자유대대로 불렸다. 총지휘관인 대대장에는 오하묵이, 그리고 정치문화 담당 총책인 군정위원장에는 최고려가 각각 임명되었다. 오하묵은 러시아 적군 제2군단 제6연대장 겸 블라고베시첸스크 수비대장으로 있다가 한인보병자유대대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자유시의 한인보병자유대대는 연해주의 다른 한인무장부대나 만주 독립군과는 달리 불세비키군대로서의 한인부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이 자유시에 집결하는 한인무장세력 내에 심상찮은 갈등관계를 가져온 요인이었다.¹⁷⁾

자유시에 집결한 시베리아 연해주 한인무장세력 가운데 내부사정이 가장 복잡한 부대는 니항군대였다. 이 부대는 자유시 이동 이후 사할린의용대로 개칭되었다. 朴秉吉이 이끌던 380여 명의 니항군대는 1920년 3월 한러 연합군이 니콜라예프스크(니항)를 공격할 때 여기에 참전했던 한인부대였다. 니항 사건 발발 후 니콜라예프스크에서 철수하면서 니항군대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자유시 일대로 집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니항군대 본대는 극동공화국 제2군단 제19연대 산하의 제3대대로 편입되었다. 2군단의 제19연대는 한인 니항군대와 함께 니콜라예프스크 일본군 공격을 주도했던 빨치산 트라피친 부대가 이동해 온 뒤 편입된 연대였다. 한편 본대에 앞서 자유시를 향해 이동해온 니항군대의 다른 한 부대는 한인자유대대 산하에 들어와 1개 중대로 편입되었다. 니항군대 본대의 최고 지휘자였던 박병길은 제2인자 박일리아와의 알력으로 인해 부대를 이탈하여 자유시를 찾아와 자유대대의 비서장에 취임함으로써 자유시 일대에 집결한 니항군대는 두 파로 나뉘어 상호 심각한 갈등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 점 또한 사변을 야기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폈듯이 청산리대첩 직후 북만주 밀산으로 집결했던 간도의 여러 독립군부대들은 통합군단인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 뒤 1921년 1월 각 부대별로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 이만(현 달네레첸스크)에 집결하게 되었다. 이때 대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도 이범석과 함께 이만으로 넘어갔었지만 자유시로 북상하지 않고 만주로 되돌아와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극동공화국 적위군의 인도에 의해 만주에서 넘어온 독립군부대는 곧 흑룡주로 이동하였다. 흑룡주에 도착하였을 당시 주요 부대는 대한총군부(최진동, 허재욱)·대한국민군(안무)·대한군정서(서일)·대한독립군(홍범도) 등이었으며, 총병력 1,900명 정도로 줄어 있었다.

자유시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부대는 이르쿠츠크에 있던 합동민족군대 소속 한인부대였다. 이 부대원 600여 명은 5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자유시로 들어왔다. 그리하여 만주와 러시아 각지로부터 몰려와 자유시와 그 인근에

17) 김창순, 위의 글, 148~149쪽.

주둔하게 된 한인 병력은 4천여 명에 달하였다.¹⁸⁾

한인 무력의 자유시 집결은 자유대대와 니항군대간에 정면대결을 야기시켰다. 자유대대는 러시아 한인사회의 ‘정부’로 자처하던 대한국민의회를 봉대했고, 니항군대는 상해 임시정부를 봉대하였다. 대한국민의회는 당시 오하묵·최고려 등의 이르쿠츠크파가 장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시베리아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세력은 이동휘계의 朴愛·李鏞 등 상해파였다. 이 양자는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무력을 자파 세력하에 두려고 자유대대와 니항군대간의 군권투쟁에 개입하게 된다.¹⁹⁾

1920년 10월 극동공화국 내의 볼셰비키 최고기관인 원동부에 박애·桂奉璫·金震·張道政·朴昌殷 등 5인을 간부로 하는 ‘한인부’가 조직되었다. 12월 21일 열린 한인부 간부회의에서는 치타에서 한인의병대회를 소집해서 전한군사위원회를 결성할 것과 대회 소집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임시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한인 군대를 통솔케 한다고 결정하였다. 1921년 1월 16일 한인부 회의에서 조직된 임시군사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창은·이용·한창걸·박일리아 등이 선출되었다. 이 위원회는 이르쿠츠크파의 무력인 자유대대와 대립 불화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 원인은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 무력을 자유대대가 관할하려는 것을 군사위원회가 자기네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 데 있었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군권 다툼은 자유시에 모인 한인 무력의 향배가 관건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니항군대 본대를 이끌고 자유시에 들어온 박일리아는 자유대대측의 만류를 뿌리치고 치타의 극동공화국 한인부를 찾아가게 된다. 박애 등의 한인부는 자유대대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극동공화국 군부와 교섭한 뒤 한인부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박창은을 총사령관, 그리고 러시아인 그레고리에프를 참모부장으로 임명하여 자유시로 파견하였다. 동시에 니항군대의 명칭을 사할린의용대로 변경하면서 자유시에 집결한 전 한인 무력을 이 군대가 관할토록 하는 극동공화국 군부의 명령을

18) 尹炳奭 外, 《러시아지역의 韓人社會와 民族運動史》(敎文社, 1994), 218쪽.

19) 김창순, 앞의 글, 153쪽.

대동케 하였다. 그러나 자유대대측에서는 이 명령에 불복하였으며, 박창은은 총사령관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한인부에서는 다시 극동공화국 군부와 교섭하여 그레고리예프를 연대장, 박일리아를 군정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들은 즉시 지휘권을 행사하여 자유대대에 편입된 종래의 니항군대와 다반군대를 자유시 북방의 마사노프로 이주시키고, 만주 독립군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나아가 대대장 오하묵이 치타에 체재중이던 자유대대를 강압적 분위기하에서 자유시 인근의 크라스노야르로 이동케 하였다. 이러한 군대 이동 조치는 자유시에 군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²⁰⁾

한편 1921년 3월 김하석과 최고려 등 이르쿠츠크파는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에 출두하여 임시고려군정의회를 조직하였다. 고려군정의회는 총사령관에는 러시아인 갈란다시윌리, 부사령관에는 오하묵, 그리고 군정위원에는 김하석·채성룡 등이 선임되었다. 한인무장세력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가진 것은 당시 보리스·스미야즈키를 수령으로 하는 이르쿠츠크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였던 까닭에, 이때부터 상황이 일변해 고려군정의회가 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곧 극동공화국 내의 러시아공산당이 맡고 있던 러시아 한인문제를 코민테른 동양비서부가 전담하게 되고, 동양비서부가 이르쿠츠크파를 일방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극동공화국 한인부의 위상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임시고려군정의회는 고려공산당 창당대회가 종료된 직후인 5월에는 ‘임시’를 떼고 정식으로 고려군정의회가 되었다. 최고지도부는 총사령관 갈란다시윌리, 군정의원 유동열·최고려 3인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마사노프에서는 상해파에 의해 한인의병대회가 개최되어 한인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는 1921년 1월 이용을 위원장으로 조직했던 임시한인군사위원회를 확대·강화시킨 것이었다. 이 대회에는 러시아의 니항군대·이만군대와, 만주의 대한광복군·대한군정서·대한의군부·군무도독부 독립군이 참가하였다. 이때 군사위원으로는 이용·채영·한운용·장기영·박일리아 등이 선출되었다. 그리하여 자유시에는 이르쿠츠크

20) 김창순, 위의 글, 156쪽.

파의 고려군정의회가, 그 인근의 마사노프에는 상해파의 한인군사위원회가 동시에 양립된 채 대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대치상황에서 1921년 5월 하순 치타를 떠난 갈란다시윌리 일행은 6월 6일 자유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니항군대와 다반군대, 그리고 이만군대 등의 러시아 한인무장 군대와 대한총군부·대한국민군 등의 만주 독립군은 1개 연대를 편성하고 사할린의용대(대한의용군)란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고려군정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 이들 부대들이 마사노프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데 비해, 자유대대와 홍범도 부대만이 자유시에 돌아와 주둔중이었다.

자유시 도착 직후 갈란다시윌리는 자신이 전군의 총사령관임을 선언하고 사할린의용대 지휘자 박일리아에게 군대를 인솔하고 자유시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박일리아는 이를 거부한 채 오히려 총사령관이 마사노프로 와 주도록 요청하였다. 하지만 양군의 팽팽한 대치상황 속에서 형세는 고려군정의회측에 점점 유리하게 돌아갔다. 홍범도 부대 이탈 이후 안무의 대한국민군이 자유시로 돌아간 것을 비롯하여 이탈자가 속출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일리아는 고려군정의회에 대한 반항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갈란다시윌리의 명령에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다.²¹⁾

이와 같은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6월 27일 밤 고려군정의회 지도부는 사할린의용대의 강제 무장해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자유시 수비대인 극동적군 제2군단 제12여단 29연대와 교섭한 결과 4개 중대를 차출하고, 여기에 오후목과 최고려 등의 자유대대 병력이 가담하여 사할린의용대의 주둔지인 수라세프카로 출동시켰다. 이때 장갑차 등의 중화기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수라세프카 일대를 포위한 뒤 28일 오후 공격명령이 하달되자 사할린의용대에 대한 공격이 개시되었다. 러시아군대의 공격 앞에 사할린의용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한인무장대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만주에서 온 독립군은 동포의 의연금으로 산 총을 버릴 수 없다고 하여 총을 든 채 제야장으로 뛰어들었다. 이것이 세칭 자유시사변이다. 독립운동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

21) 김창순, 위의 글, 157~159쪽.

로 기록된 이 사변을 현장에서 목격한 김승빈이라는 인물은 그 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자유시사변에 직접 참가자는 아니나 목격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1921년 6월 21일(28일의 착각)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고려혁명군사회의의 군대와 싸투의용군의 군대가 서로 대진하고 있는데 무장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곧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 혁명군사회의군대는 자유시 동남향 언덕진 비탈을 따라 산개하였는데 좌익에 갈란다시월리 군대가 배치되었고 그에 이어서 조선인 부대들이 배치되어 산병선을 이루었고 싸투의용군 부대들은 수랍쓰까 서남방 동구로부터 혁명군의회 군대들의 산병선을 대치하여 산병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 낮 12시가 거의 되어 또다시 전선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시가를 벗어나 자마자 한 방의 총소리가 나더니 그에 이어 양측에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나가니 보초가 통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전선까지 가지 못하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총소리는 해질 무렵에 가서야 그쳤습니다. 그러니 전투가 8~9시간 계속된 셈입니다. 그(참변) 이튿날 싸투의용군에서 탈퇴하여 자유시에 와 있던 홍범도 군대와 하사양성소 두 부대에서 군인 80여 명을 동원하여 전장(참변현장) 소재를 하였습니다. 즉 전사자들의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였습니다. … 그 후에 관도 갖추지 못하고 장례식도 없이 길게 파놓은 웅덩이에 시체를 차례로 눕히고 그 위에 백목을 덮고 묻었습니다. … 싸투의용군의 군인 수효가 2천여 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33인이 전사하고 체야강을 건너다가 배가 얹어져서 물에 빠져죽은 사람들이 약간 있었다고 하며 포로로 붙잡힌 사람이 800여 명이 되었고 그 밖에는 사처로 달아났습니다(《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洪範圖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1995, 99~100쪽).

자유시사변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가해자인 고려군정의회측에서는 사망 36명, 행방불명 59명, 포로 864명으로 집계한 반면, 간도 반일단체들이 연명한 참변 성토문에서는 사망 272명, 익사 31명, 행방불명 250여 명 등 대략 55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그리고 917명이 포로로 잡힌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²²⁾ 무릇 자유시사변의 피해상황은 독립운동사상 미증유의 참극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

22) 尹炳奭, 《再發掘 韓國獨立運動史》(한국일보사, 1987), 257쪽.

이상의 자유시사변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사이의 싸움이라는 한인 내분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여기에는 볼셰비키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도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혹은 자유대대와 니항군대간에 대립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유대대측을 비호, 고려군정의회라는 최고기구를 구성하여 상해파와 니항군대의 불만을 샀다. 비록 한인부대가 러시아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한인부대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러시아혁명을 지원하는 외국인 부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일방적인 조처는 러시아공산당 혹은 코민테른이 말하는 피압박민족해방이라는 슬로건 내부에 짙은 자국 중심주의의 색채를 띠고 진행되었던 것이다.²³⁾

청산리대첩 이후 일본군의 탄압을 피하고 새로운 항일전의 전기를 마련코자 결행한 만주 독립군의 고난의 장정은 결국 이처럼 쓰라린 수난사로 귀결되고 말았다. 참변 이후 잔여 부대는 북만주로 다시 넘어왔으며, 일부는 현지에 잔류하고 나머지는 사산하게 되었다. 그 뒤 남북만주 각지의 독립운동 세력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통신과 연락을 재개하면서 군단 정비와 통합작업에 들어가 1920년대 중반 만주독립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갔다.

〈朴敏泳〉

23) 尹炳奭 外, 앞의 책, 232~233쪽.